ISSN 1727—9062

차 례

주체113(2024)년 2월호

제414호
주체78(1989)년 8월 창간

표지: 그리는 마음

광명성절을 맞으며 진행된 사진 및 도서전시회에서 도서를 보고있는 재중동포들.
그들의 얼굴마다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짙게도 어려있다.

본사기자 김영호

편집: 서철남, 최은혁, 로윤경

공화국의 부흥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당면과업에 대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회의에서 강령적인 시정연설을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1월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회의에서 강령적인 시정연설 《공화국의 부흥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당면과업에 대하여》를 하시였다.

친애하는 대의원동지들!

존경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동지 그리고 의장동지!

방청자동지들!

우리의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장성발전사에 위대한 전환의 해, 위대한 변혁의 해로 특기된 2023년을 긍지높이 총화하고 당 제8차대회가 내세운 5개년계획완수의 실천적담보를 확정지을 2024년의 진군을 개시한 중요한 시점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회의가 진행되고있습니다.

다같이 체감한바이지만 지난해는 우리 당과 정부와 인민이 겹쌓이는 어려운 시련속에서도 최대의 분발심과 투쟁력을 발휘하여 중대한 성과들과 사변들을 청사에 자랑스럽게 아로새긴 잊지 못할 한해였습니다.

장장 80년을 가까이하는 공화국의 력사에 2023년과 같이 우리의 국력강화에서 전방위적인 확실한 전진이 이룩되고 국권과 국위가 당당하게 떨쳐진적은 흔치 않았습니다.

지난해에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전 령역에서 달성한 성과들에 대해서는 이미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에서 총화평가되였으므로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겠지만 명백한것은 국가의 모든 구성원들이 당과 정부의 령도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받들어주었기에 여러해동안 간고분투한 루적이 마침내 훌륭한 결실들을 이루어놓았다는것입니다.

당과 공화국정부가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이룩할데 대한 로선과 시정방침을 적시에 옳게 책정하고 해마다 국정을 신축성있게, 활력있게 조정하면서 중첩되는 국난과 위기들을 타개하고 목표한바의 국가발전로정을 견결히 유지하였을뿐 아니라 전체 인민의 애국적열의와 영웅적헌신성을 발동하여 확고한 상승추이를 쟁취하였다는것이 우리의 2023년 투쟁을 통하여 립증되였습니다.

적대세력들의 대결광기는 정세를 극단에로 몰아갔지만 그를 호기로 역전시켜 더욱 과감하게 실행된 자위력강화사업들과 군사적대응행동들은 국익사수의지나 압도적힘의 과시만이 아니였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전체 인민들과 공화국무력의 전체 장병들을 정신적으로 앙양시키고 대외적으로는 군사강국으로서의 무시할수 없는 실체를 절대화하고 우리의 국위는 물론 세계정치지형에서

까지 극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인민이 자기가 선택하고 강인하게 추진해나가는 강국건설위업이 정당한것임을 재삼 확인하고 우리 국가의 현 장성흐름을 통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기를 실감하고 신심을 굳히게 되였다는 이것이 무엇보다 소중한것입니다.

이 모든 귀중한 성과들에는 인민의 기대를 한시도 잊지 않고 국가주권의 정바른 행사와 발전을 위하여 고심하고 분투해온 대의원동지들의 노력도 깃들어있습니다.

당과 국가의 성업에 대한 충실성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으로 자기의 책무를 다함에 노력하여온 대의원동지들에게 사의를 표합니다.

대의원동지들!

물론 이 모든것에 만족하기는 이르며 강국을 향한 우리의 리상을 실현하고 사회주의의 승리를 성취함에 있어서 아직은 시작을 뗀데 불과합니다.

2023년의 귀중한 성과가 2024년에도 계속적인 발전과 성공에로 이어지게 하며 다음기 정부앞에 든든한 발판을 확보해주기 위한 문제가 새년도 국정을 론하는 오늘 이 회의의 중심의제였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는 2024년을 사회주의건설의 전 전선에서 공격기세를 더욱 고조시켜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투쟁목표점령의 승산을 확정지어야 할 결정적인 해로 규정하고 과학적이며 실현가능한 결정들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그 결정들에는 우리 당이 사랑하는 인민들과 아이들을 위하여 이루고저 하는 숙원들, 위대한 우리 국가사회제도의 부단한 발전을 위한 방략들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여있습니다.

당결정은 국가건설과 활동의 지침이고 공화국정권이 드팀없이 실행해야 할 정치적과제이며 그 철저한 관철에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의 획기적전환이 있고 국력제고와 국익수호, 국위선양이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당결정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어느 하나도 놓침없이, 미결점이 없이 완벽하게 관철함으로써 공화국의 성스러운 발전사를 보다 확실하고 변혁적인 성과들로 이어나가야 합니다.

현시기 공화국정부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은 국가경제의 상승추이를 계속 고조시켜 나라의 경제전반을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발전궤도에 확고히 올려세우는것입니다.

경제전선은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선이며 강력하고 현대적인 자립경제의 든든한 뒤받침이 없이는 우리 국가의 높은 존엄과 자주적발전과 인민들의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습니다.

우리모두가 자기 눈으로, 페부로 직접 실감하는바와 같이 5개년계획수행을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은 류례없는 시련속에서도 한해한해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전진과 발전의 층계들을 착실히 밟으며 성공적으로 진척되고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값비싼 노력과 피땀으로 이루어놓은 국가경제의 상승국면과 도도한 전진기세를 더욱 앙양시켜 우리가 내세운 리상이 결코 먼 후날의 일이 아니라 눈앞의 현실이라는것을 힘있게 실증하여야 합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장성에 부단히 박차를 가하고 정비보강사업을 다그쳐 끝내는데 힘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지난해 우리가 인민경제의 전반적부문과 단위들의 생산을 활성화하면서 당대회가 결정한 정비보강계획을 기본적으로 끝내는것을 경제사업의 중심과업으로 내세우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였지만 일부 미진된 대상들도 있습니다.

정비보강계획의 완수이자 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투쟁의 결속이라고도 할수 있는것만큼 우리는 조건과 정세의 변화에 관계없이 이 사업을 계속 심화시켜 올해에도 반드시 좋은 결실을 이루어야 합니다.

기간공업부문들에 선차적의의를 부여하고 이 부문들에서부터 자립성을 더욱 키우고 현대화를 실현하여 경제전반의 비약적인 상승을 안아오려는 우리 당과 국가의 정책은 일관합니다.

금속공업과 화학공업부문에서 이미 이룩한 주체화, 현대화의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지금 추진하고있는 대상들의 완공을 앞당기고 정상운영을 위한 보장사업을 실속있게 하여 자립경제의 기둥을 더욱 튼튼히 보강하여야 합니다.

지금 전력공업부문이 어려운 속에서도 나라의 전력수요를 보장하기 위해 분투하고있지만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많은 건설들이 진행되는데 맞게 생산을 늘이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이미 조성된 발전능력을 최대한 리용하고 단천발전소를 비롯한 여러 발전소건설을 다그쳐 끝내는것과 함께 앞으로 원자력발전소, 조수력발전소까지 운영하게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동력부족문제를 해결할수 있습니다.

석탄공업, 채취공업부문에서는 앙양된 투쟁기세를 늦추지 말고 생산계획을 드팀없이 수행하여 주요생산부문들에 필요한 원료와 연료를 철저히 보장하며 생산공정의 정비보강과 능력확대를 위한 사업도 완강하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올해 경제사업에서 특별히 역할을 높여야 할 부문은 기계공업부문입니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룡성기계련합기업소를 현대화의 표준, 본보기로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요구하는 기계설비들을 제때에 질적으로 생산보장하여 국가경제전반의 상승발전을 적극 뒤받침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과 국가가 최근년간 건설사업에 힘을 집중하여 이룩한 성과들은 물론 자랑할만한것이지만 우리는 절대로 여기에 만족하거나 기세를 늦출수 없습니다.

특히 살림집건설은 당의 권위, 공화국정권의 인민적성격과 직결되여있는 중대사이며 인민들과 한 약속은 아무리 힘든 고비에 맞다들려도 무조건 지키는것이 우리 당과 정부의 본태이고 본도입니다.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을 결속하는것을 비롯하여 앞으로 남은 2년기간에 건설하여야 할 살림집세대수가 적지 않으므로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계속 드세찬 공격전을 벌려 반드시 인민들의 기대에 보답하여야 합니다.

세기적인 락후성을 털어버리는 농촌건설을 더욱 완강하게 진척시킴으로써 올해에도 우리 농업근로자들이 훌륭한 새 보금자리에 살림을 펴는 기쁨넘친 광경이 온 나라 방방곡곡에 펼쳐지게 하여야 합니다.

이밖에도 건설부문에서는 각 도소재지들을 개변시키고 동서해를 련결하는 대운하를 건설하는것을 비롯하여 거창한 작전들이 계획되여있는데 맞게 그 준비를 지금부터 빈틈없이 갖추어나가야 하겠습니다.

전국적규모에서 살림집건설과 공공건물, 산업시설들의 건설을 적극 다그치자면 건재공업부문이 계속 생산적앙양을 일으켜야 합니다.

새로 꾸리거나 능력확장한 건재생산기지들을 활성화하여 세멘트생산을 늘일뿐 아니라 타일, 석재, 유리, 비닐벽지를 비롯한 각종 건재품들을 대대적으로 생산보장함으로써 건설일정에 지장을 주는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제전반의 상승추이는 불피코 물동수송량의 증가를 가져오며 이것은 나라의 기본수송수단인 철도의 역할을 더욱 높일것을 요구합니다.

철도부문에서는 수송조직과 지휘를 개선하고 현존철도수명을 유지하는데 힘을 넣어 인민경제의 수송수요를 무조건 보장하며 철도부문 공장, 기업소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다지는 사업도 실속있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철도를 끼고있는 도, 시, 군들에서도 철길유지보수에 항상 관심을 돌리고 필요한 로력과 자재를 제때에 보장하여 철도운행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보산업부문과 국토환경보호부문, 도시경영부문에서도 사회주의전면적발전의 요구에 맞게 국가관리와 경제장성, 인민들의 문명생활에 필요한 조건과 환경을 부단히 개변해나가기 위한 당면과제들과 전망계획들을 착실히 추진하여야 할것입니다.

사회주의경제가 자기의 우월성과 위력을 충분히 발휘하자면 경제지도와 관리에서 통일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모든 부문이 공화국 내각의 결정과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엄격한 규률과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이제는 경제부문들이 제각기 본위주의를 추구하며 정부의 행정지시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국가경제사업에서 불균형과 무질서를 조성하고도 무난하던 때는 지났습니다.

내각에서는 당과 국가가 부여한 모든 권한을 책임적으로 행사하여 행정경제사업체계와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혁명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경제전반을 확고히 틀어쥐고 모든 사업을 주동적으로 박력있게 전개하며 강한 지도력과 장악력, 통제력, 집행력을 발휘하여 전면적발전 국면을 계속 상승시켜나가야 합니다.

어느 단위도 내각밖에서 마음대로 놀아대지 못하게 하며 단위특수화, 본위주의와의 투쟁을 강도높이 벌려 국가의 리익, 전사회적인 리익을 우선시하는 기풍이 확고히 지배되게 하여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경제하부구조와 인구, 로력관리와 같은 경제발전의 중요인자들을 정확히 예측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며 국가경제기관들의 사업을 전망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체계도 세워 인민경제전반의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나가야 합니다.

대의원동지들!

현시기 우리 공화국정부에 있어서 가장 중시하고 품을 들여야 할 지상의 과업은 인민생활을 하루빨리 안정향상시키는것입니다.

우리 인민들이 언제나 당과 정부를 변함없이 지지해주고 그 어떤 정책도 자기의것으로 받아들이며 절대성, 무조건성의 집행력으로 받들어주는 것은 인민의 복리증진을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운 당과 공화국정부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기때문입니다.

인민의 하늘같은 믿음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분투하고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인민들의 소박한 생활상요구마저도 충족시키지 못하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인민생활개선을 위한 사업에서 중요한것은 첫째도 둘째도 농사를 잘 짓는것입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농업부문에서 지난해 알곡고지점령으로 신심과 열의가 높아졌는데 이러한 승세를 몇년동안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만이 인민생활을 정상궤도에 올려세울수 있으며 당과 정부에 대한 인민의 신뢰를 공고히 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시였다.

지난해처럼 내각과 경제지도기관들에서 비료와 농약, 연유를 비롯한 영농물자들을 미리 앞질러가며 보장하여 농장들에서 농사를 마음놓고 지을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조성해주어야 하며 온 나라가 또다시 년초부터 지원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농업부문을 사상정신적으로, 물질기술적으로 고무격려하여야 합니다.

농업부문에서는 농업근로자들의 애국적열의와 집단주의정신을 더 높이 발양시키고 선진적인 농업과학기술에 토대하여 과학농사열풍을 일으키며 지력을 높이고 관개체계를 완비하는 사업을 힘있게 내밀어 기후조건이 어떠하든 무조건 올해를 또다시 풍작의 해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밀재배면적을 늘여 알곡생산구조를 바꾸고 밀가공기지들을 건설하는 사업과 농촌경리의 기계화, 간석지건설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남새농사와 축산, 과수와 공예작물농사도 다같이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특히 올해중에 평양시에 현대적인 가금공장을 또 하나 건설하며 앞으로는 각 도들에도 일떠세워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은 알과 고기가 차례지게 하자고 합니다.

수산부문도 발전시켜 변화되는 어황조건에 맞게 물고기잡이를 다양화하고 양어와 양식을 대대적으로 하여 수산물생산량을 늘이며 인민들에게 수산물이 골고루 차례지도록 실무적인 대책을 잘 세워야 합니다.

현시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수도와 지방의 차이, 지역간불균형을 극복하는것입니다.

지방마다 지리적환경과 자원, 경제적잠재력과 생활환경에서는 차이날수 있지만 공화국령역에는 인민생활에서 뒤떨어진 지역이 있어서는 안된다는것이 우리 당과 정부의 절대불변한 원칙입니다.

지금 수도와 지방, 도시와 농촌의 생활상격차가 심하고 같은 도와 시, 군내에서도 조건에 따라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리념에 배치되는 이러한 현상을 절대로 방치할수 없으며 지방살림살이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대책을 강하게 세워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최근 몇년동안에 중평온실농장과 련포온실농장을 건설하고 김화군의 지방공업공장들을 완전히 일신시키였으며 전국적인 농촌살림집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개성시가 자체로 살아나갈수 있게 도와주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것을 비롯하여 지방인민들을 위한 사업들을 작전하고 내밀고있는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아직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가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8기기간에 중앙적인 성격을 띠는 중요정책집행은 언제 한번 주춤한적이 없이 기세좋게 내밀고 많은 변화들을 가져왔지만 지방경제를 발전시키는 사업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서에도 개성시 시내지구와 재령군, 연탄군, 우시군에만 지방공업공장들을 김화군 지방공업공장들의 수준으로 꾸리는것으로 하고 나머지 시, 군들은 앞으로 건설을 할수 있는 준비를 다그치는것으로 반영되였는데 이렇게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서는 언제 가도 지방경제를 발전시킬수 없으며 인민

생활에서 뚜렷한 변화를 가져올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김화군에서 지방공업공장들이 번듯하게 일떠선 다음 공장을 정상운영하는데 필요한 원료를 자체로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달라붙어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 평가하시면서 시, 군들에서 지방공업공장들을 현대적으로 건설하고 자체의 원료에 의거하여 생산을 정상화하자면 당면하게 제기되는 문제들이 적지 않겠지만 김화군처럼 마음먹고 달라붙어 지방공업공장건설과 원료기지조성사업을 다같이 내밀면 얼마든지 지방경제를 추켜세울수 있으며 지방인민들의 생활에서 실제적인 개변을 가져올수 있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총적으로 결론짓는다면 우리가 지방의 락후한 현 상태를 관조적으로 보고 대하며 경제적조건을 구실로 지방공업발전을 위한 중대조치를 취하지 못할 아무러한 근거나 리유가 없다고, 어느 시, 군이나 조건과 실태는 다 비슷비슷하며 문제는 어떻게 지방공업공장들을 꾸리고 생산을 정상화하겠는가 하는 가능성을 찾아쥐는것이라고 강조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시였다.

지금 우리가 형세와 조건이 좋아지기만을 기다리면서 손을 대지 않으면 언제 지방공업공장들을 개변시키며 누가 원료보장가능성을 열어주겠습니까.

수십년간 그러해왔듯이 앞으로 공장들을 새로 건설하고 능력을 조성한다고 뜨뜨미지근한 말이나 계속하면서 혁명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과연 언제 가서 전반적인 지방공업의 발전을 이룩하겠는가 하는것을 이제는 우리가 솔직히 고민하고 고심해보아야 합니다.

창성련석회의만 놓고보아도 이제는 그때로부터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까.

70년대, 80년대에도 인민생활과 직결되여있는 지방공업발전과 관련한 수많은 정책적문제들이 토의되였지만 전국적판도에서 혁명적인 대책이 세워지지 못했고 우리 일군들의 그릇된 관점과 태도로 인하여 수많은 인민적시책, 당정책들이 결정서나 방침문서의 글줄에만 남고 지방인민들의 실질적인 생활수준에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이룩되지 못했습니다.

리상과 리념을 글줄에 반영하기는 쉬워도 그것은 결코 초자연적인 그 어떤 힘이나 흐르는 시간이 절로 해결해주는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정확한 투쟁방침과 옳바른 방법론을 가지고 혁명적인 결단을 내리고 대담한 실천행동으로 옮길 때라야 비로소 쟁취할수 있는것입니다.

지금 지방들에는 시대의 요구에 부합되는 공장다운 지방공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더이상 외면하면 안되며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역인민들의 삶과 직접적련관이 있는 지방경제가 초보적인 조건도 갖추지 못하고 한심한 상태에 있다는것을 알면서도 당과 정부가 더 이상 후에 보자는 식의 태도를 취할 그 어떤 명분도, 권리도 없습니다.

이제는 당창건 80돐이 눈앞에 박두해왔고 공화국정권이 선지도 75년이 지났습니다.

창당리념과 투쟁의 근본목적과 우리 정권의 성격을 봐도 어느 나라보다 지역인민들의 삶을 더 걱정하고 지방발전정책을 우선시하여야 할 우리 당과 정부에 있어서 지방의 세기적락후성을 아직도 털어버리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앉아있다는것은 매우 심중한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시, 군의 경제적자원과 원료원천을 조성하고 적극 리용하여 자기 지역내 주민들에게 항상 질높은 기초식품과 식료품, 소비품들을 보장함으로써 인민들에게 초보적인 생활상편의와 조건을 제공하는것은 사회주의전면적발전기를 열어나가야 하는 우리 당과 정부에 있어서 더는 미룰수 없는 절박한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기적인 락후성을 털어버리고 중앙과 지방의 차이를 줄이며 지방공업을 전면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지향시키되 매 지방경제의 특색있는 발전을 추동하고 경쟁적인 발전의 흐름을 만들어놓는 것은 우리 정부앞에 나선 당면한 과업이며 우리 당의 숙원입니다.

인민생활과 관련한 이러한 절박한 과업들이 당면한 인민경제계획수행을 토의하는 금번 전원회의에서도 두드러지게 정책화되지 못함으로 하여 인민들의 커다란 기대에 보답하지 못한 것에 대한 깊은 책임을 느끼면서 나는 이번에 중대사안을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에 제의하고 정책화할것을 결심하였습니다.

김화군에 시범적으로 지방공업공장들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자체로 운영하는 훌륭한 경험도 축적하였고 실지 군내인민생활향상에서 필수적이며 다른 시, 군들도 얼마든지 앞으로 그러한 능력을 키울수 있고 어차피 언젠가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시, 군들의 능력을 보고 당장 운영능력이 있다고 보는 군들부터 건설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옳겠지만 건설의 순서는 매길수 있어도 이 나라 공민들의 삶을 걱정하고 그것을 풀기 위한 우리 당의 결정이나 공화국정부의 시책에서 누구를 우선시하고 누구를 차요시하는 문서장의 페지수나 그 순위가 정해져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나는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건설을 매해 20개 군씩 어김없는 정책적과업으로 당에서 직접 틀어쥐고 김화군과 같은 수준으로 모가 나게 집행하여 10년안에 전국의 모든 시, 군들 다시말하여 전국인민들의 초보적인 물질문화생활수준을 한계단 비약시키자고 합니다.

농촌진흥을 위한 로선과 별도로 지방공업발전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가급적 빠른 기간내에 전국적판도에서 지역인민들의 초보적인 물질문화생활수준을 한계단 비약시키려는 우리 당의 이 정책을 《지방발전 20×10 정책》으로 명명하고 강력하게 추진하자고 합니다.

이것은 말로만 해오던것과는 다른 하나의 거대한 변혁, 지방의 세기적인 락후성을 털어버리고 지방인민들의 숙망을 풀어주며 우리 사람들의 인식령역에서 개변을 가져오기 위한 하나의 거창한 혁명입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김화군에 지방공업공장들을 시범적으로 꾸린 경험에 기초하여 당에서 책임지고 매 군에 자금, 로력, 자재를 지속적으로, 년차적으로, 의무적으로 보장해주는것과 함께 국가적지도사업체계를 세우기 위한 대책적문제들에 대해 피력하시면서 말씀을 이으시였다.

그리고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에 지방공업건설지도과를 따로 내오고 내가 직접 책임지고 총화하며 완강히 내밀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곧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소집하고 《지방발전 20×10 정책》을 실무토의하고 결정하자고 합니다.

우리는 세기적인 숙원을 달성하는 실제적인 큼직한 조치를 취하여 우리 당의 원대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추진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무거운 책임감을 스스로 걸머지고 자기의 책무앞에 마땅히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해나서야 하며 이러한 실제적변화를 안아오는것으로써 인민들의 기대에 반드시 보답하여

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구상을 실현할 능력과 가능성, 의지가 충분합니다.

이제 모든 시, 군 지방공업공장들을 김화군 지방공업공장들의 수준으로 건설하는 문제를 중요한 국책으로 정책화하고 밀고나가면 지방인민들도 좋아하고 신심을 가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방공업공장들에서는 당중앙의 의도에 맞게 소비품들의 생산을 늘이고 질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내밀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올해 사회주의적시책집행에서 특별히 개선을 가져와야 할 문제는 당중앙위원회가 제8기 제9차전원회의에서 강하게 총화, 포치한바와 같이 학생교복과 가방, 신발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각 도들에 학생가방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한것처럼 학생교복과 신발을 생산하는 전문공장도 도내수요를 충족시킬수 있게 새로 짓도록 하였는데 여기에 필요한 기능공들과 설비들을 보장하고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대의원들과 정권기관 일군들도 각별한 정성을 기울여 도시나 산골 할것없이 당과 국가의 시책이 똑같이 가닿을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생활에서 지역적편파성을 줄이고 해당 지역들이 자체로 살아갈수 있게 자립성을 키워주기 위한 국가적인 조치들도 취할데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시였다.

도, 시, 군들에서 자기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인민생활자금을 충당할데 대한 문제는 당적으로도 이미 강조된바 있지만 이를 담보할수 있게 경제실무적으로, 법적으로 필요한 후속조치들이 제때에 안받침되지 못하고 승인절차와 공정이 복잡하며 제한력이 많은 등 여러가지 요인들로 하여 지방에서는 덕을 똑똑히 보지 못하고있습니다.

이러한 페단들을 전국적으로 말끔히 장악하고 해당 지역 인민들의 생활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게 바다를 낀 곳에서는 바다를, 산을 낀 곳에서는 산을 잘 리용하면서 관광도 하고 자원도 효과적으로 개발, 동원할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 인민들의 의식주에서 실제적인 개변을 가져와야 합니다.

나는 이미 당중앙을 대표하여 우리 인민들과 후대들의 행복한 웃음소리를 사회주의제도의 상징으로, 우리식 사회주의의 강대성으로, 강국의 지위를 결정짓는 척도로 규정하였습니다.

우리는 투쟁을 더욱 재촉하고 더 큰 성과를 지향하는 계속투쟁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전방위적 공간에서, 인민생활향상에서 변혁과 개변을 다계단으로, 립체적으로, 공세적으로 이룩해나가야 할것입니다.

대의원동지들!

사회주의건설의 각 분야에서 전면적발전을 지향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그 어느때보다도 과학기술의 위력, 인재들의 활약을 요구하고있습니다.

국가부흥을 위한 우리의 혁명사업에서 거대한 몫을 맡고있는 과학기술부문이 자기의 책임을 다하게 하자면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인 지휘관리기능을 보다 강화하여야 합니다.

국가과학기술발전전략을 채택하고 국가중점과제와 연구목표들을 설정함에 있어서 정책적선을 똑바로 세우고 투자의 선후차를 옳게 정하며 경제발전과 인민생활개선에 현존과학기술력량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효률적으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과학자, 기술자들이 연구사업에 전심할수 있도록 조건을 보장해주고 과학기술성과를 일반화하는 사업을 잘하기 위한 국가적조치들을 계속 보완해나가야 합니다.

국가부흥발전의 견지에서 볼 때 리상적인것은 누구나 과학과 기술을 배우려 하고 과학기술로 부국강병에 이바지하는것을 가장 긍지스럽게 여기는 풍조가 온 나라에 지배되게 하는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국가와 사회의 진보를 위한 과학기술연구, 기술혁신에 뛰여들수 있게 정치적 및 물질적평가제도를 강화하는것을 비롯하여 국가의 현행법과 인재관리체계, 각종 규정도 다시 따져보고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갱신하여야 합니다.

전면적으로 발전된 문명부강한 나라를 건설하자면 응당 교육과 보건을 세계선진수준에 올려세워야 합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최근년간 나라의 교육구조를 고치고 교육내용과 방법을 혁신하며 교육조건과 환경을 현대화하는 사업에 많은 품을 들이고있는데 새 세기 교육혁명은 이제 시작이나 같습니다.

특히 지방의 교육수준과 환경은 매우 렬악한 상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있습니다.

교육부문에서는 당의 교육정책의 요구대로 초등 및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질적수준을 한단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책략적으로 전망성있게 잘해나가며 현재 추진하고있는 종합적인 교육기자재공장건설을 다그쳐 교구비품과 실험실습기재보장능력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중요하게는 중앙교육기관들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인재들을 키워내는 사업에 힘을 넣는것과 함께 농촌학교를 비롯한 지방교육기관들을 추켜세우는데 국가적인 력량을 투하하여 도시와 농촌의 교육수준차이를 결정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보건부문에서도 인민들에 대한 의료봉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야 합니다.

올해에 평양종합병원을 완공하여 개원하고 동시에 강원도에 현대적인 종합병원을 건설하면 새 시대에 어울리는 훌륭한 보건시설의 본보기가 마련되게 될것입니다.

앞으로는 매해 다른 도들에도 현대적인 종합병원들을 건설하고 시, 군들에도 온전한 병원들을 꾸려 전체 인민이 그 어디에서나 선진적인 의료봉사를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제약공장들과 의료기구공장들을 현대화하고 중앙적인 고려약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도 다그쳐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개선하며 전국적범위에로 확대하고있는 보건보험기금에 의한 의료보장제를 정확히 편향없이 실시하는데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대의원동지들!

우리 공화국은 평화애호적인 사회주의국가이며 침략과 간섭이 없는 평온하고 안정된 환경속에서 자주적발전의 길을 걸으려는 우리의 지향은 시종일관하고 그를 위해 바친 대가도 막대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가의 안전환경은 완화되기는커녕 날로 악화일로를 기록하였으며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위태한 전쟁발발위험지역으로 되였습니다.

미국당국자들이 때없이 벨어내는 우리의 《정권종말》망발과 함께 공화국주변지역에 상시주둔하다싶이 하는 방대한 핵전략자산, 추종세력을 규합하여 력대 최대규모로 쉬임없이 벌리는 전쟁연습, 미국의 사촉속에 강화되는 일본, 대한민

국의 군사적결탁 등은 우리 국가의 안전을 각일각 더욱 엄중하게 해치고있습니다.

년대와 년대를 이어 지속적으로 감행되고있는 미국의 거침없는 반공화국대결정책과 그에 무조건적으로 굴종하는 대한민국과 같은 노복국가들의 자멸적망동은 우리 공화국의 적개심을 촉진시키는 한편 군사력강화의 정당한 명분과 압도적인 핵전쟁억제력을 보다 비상히 제고해나가야 할 당위성을 충분히 제공해주고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그 주구들은 전쟁열에 들떠있습니다.

우리는 조국과 인민, 후손만대의 안녕을 목적하여 자위적국방력강화의 일로를 변함없이 걸어나가야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오늘 중동에서 벌어지는 무차별적인 전쟁의 참화를 남의 일로만 여기지 말아야 하며 군력이자 국가와 인민의 안전이고 존엄이고 위상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간직하고 우리의 자위적국방력을 백배, 천배 최상최대로 다져나가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여야 합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군대는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안녕을 목숨바쳐 지켜야 하는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명심하고 적들의 사소한 군사적움직임도 놓치지 말고 예리하게 주시하면서 그 어떤 형태의 도발적행위도 압도적인 대응으로 철저히, 무자비하게 제압분쇄할수 있게 확신성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나가야 합니다.

대사변준비가 절박하게 현실화되고 그를 강력한 군사행동으로 치르어야 할 중대한 사명이 우리 군대에 지워진데 맞게 전군의 각급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전원회의들과 당중앙군사위원회정신을 진지하게 학습하고 실행하며 실전화된 훈련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치사상교양사업에 언제나와 같이 큰 힘을 넣음으로써 정치사상적 및 군사기술적우세로써 적들과의 대결에서 반드시 이길수 있게 준비해나가야 합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군대의 전쟁준비는 무장장비의 현대화와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군수공업부문에서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올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전쟁억제력강화와 국가방위력증대를 위한 책임적인 투쟁에서 견지하고 관철하여야 할 전략적과업들을 제시하시고 다음의 문제들을 계속하여 언급하시였다.

이 땅에 사는 공민이라면 누구나 조국보위를 최대의 애국으로 여기고 자각적으로 떨쳐나서야 합니다.

전민항전으로 나라도 지키고 혁명적대사변도 맞이하자는것이 우리 당의 전략적구상입니다.

민방위부문에서는 지난 시기 전쟁준비완성을 만성적으로 대하면서 형식적으로, 눈가림식으로 진행한데서 심각한 교훈을 찾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관점과 립장에서 혁명적으로 분발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방위력,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은 명실공히 전국가적인 사업으로서 공화국령내의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은 군사에 대한 옳은 관점을 가지고 군력강화에 필요한 모든것을 최우선적으로, 가장 질높게 보장하는것을 어길수 없는 철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각급 인민정권기관들은 일단 유사시에는 즉시에 전시체제로 이행할수 있는 철저한 대책을 세우며 전민항전을 위한 물질적준비도 빈틈없이 갖추도록 하여야 합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은 나라의 방위력강화에 한몫하는것을 자기의 응당한 의무로 여기고 자기 부문, 자기 단위앞에 맡겨진 군사과업들을 어김없이 수행해나가야 하며 군사를 소홀히 하는 현상들은 제때에 문제를 세워 철저히 극복해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대의원동지들!

오늘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근 80년간의 북남관계사에 종지부를 찍고 조선반도에 병존하는 두개 국가를 인정한 기초우에서 우리 공화국의 대남정책을 새롭게 법화하였습니다.

당중앙위원회 2023년 12월전원회의에서도 엄숙히 천명된바와 같이 우리 당과 정부와 인민은 흘러온 력사의 장구한 기간 언제나 동족, 동포라는 관점에서 대범한 포용력과 꾸준한 인내력,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이며 대한민국것들과 조국통일의 대의를 허심탄회하게 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쓰라린 북남관계사가 주는 최종결론은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을 꿈꾸면서 우리 공화국과의 전면대결을 국책으로 하고있고 나날이 패악해지고 오만무례해지는 대결광증속에 동족의식이 거세된 대한민국족속들과는 민족중흥의 길, 통일의 길을 함께 갈수 없다는것입니다.

북남관계가 더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중에 있는 완전한 두 교전국관계라는 현실은 외세의 특등주구집단인 대한민국이 극악하고도 자멸적인 대결망동으로 써놓은 북과 남의 명백한 현주소이며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면사포를 벗겨놓은 조선반도의 실상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법을 론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북남관계와 통일정책에 대한 립장을 새롭게 정립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련대기구로 내왔던 우리의 관련단체들을 모두 정리한것은 반드시 짚고넘어가야 할 필수불가결의 공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국가의 남쪽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령토, 령공, 령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도발로 간주될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의 일부 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미 나는 지난번 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이라는데 《대한민국의 령토는 조선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버젓이 명기되여있는 사실에 대하여 상기시켰습니다.

이번에 일부 다른 나라들의 헌법자료를 료해해보니 국가주권이 행사되는 령역부문 다시말해서 자기 나라의 령토, 령해, 령공지역에 대한 정치적 및 지리적인 정의를 헌법에 명백히 규제해놓고있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 헌법에는 상기내용들을 반영한 조항이 없는데 우리 공화국이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모순적인 기성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독립적인 사회주의국가로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행사령역을 합법적으로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령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인민들의 정치사상생활과 정신문화생활령역에서 《삼천리금수강산》, 《8천만겨레》와 같이 북과 남을 동족으로 오도하는 잔재적인 낱말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것과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것이 옳다고 생

각합니다.

이밖에도 헌법에 있는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되여야 한다고 봅니다.

나는 이러한 문제들을 반영하여 공화국헌법이 개정되여야 하며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개정과 함께 《동족, 동질관계로서의 북남조선》, 《우리 민족끼리》, 《평화통일》 등의 상징으로 비쳐질수 있는 과거시대의 잔여물들을 처리해버리기 위한 실무적대책들을 적시적으로 따라세워야 합니다.

당면해서 북남교류협력의 상징으로 존재하던 경의선의 우리측구간을 회복불가한 수준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놓는것을 비롯하여 접경지역의 모든 북남련계조건들을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조치들을 엄격히 실시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 평양의 남쪽관문에 꼴불견으로 서 있는《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철거해버리는 등 이여의 대책들도 실행함으로써 우리 공화국의 민족력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자체를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합니다.

이 기회를 빌어 나는 우리 공화국이 그 어떤 정세변화에도 흔들림없이 자기의 목숨처럼 놓지 않고 강력히 틀어쥐고나가는 자위적국방력강화의 혁명적성격에 대해서 다시금 명백히 밝히자고 합니다.

우리가 키우는 최강의 절대적힘은 그 무슨 일방적인 《무력통일》을 위한 선제공격수단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꼭 키워야만 하는 자위권에 속하는 정당방위력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언합니다.

힘의 론리가 지배하는 오늘의 세계에서 그리고 수십여년에 걸쳐 전쟁의 위험이 항시적으로 떠돌고있는 열점지역의 우리 국가에 있어서 강력한 군사력보유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선택해야만 하는 필연적인 투쟁공정이며 숙명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력사적과제입니다.

적들의 끈질긴 압박과 제재가 동반되는 최악의 국난이 지속되는 속에서도 우리가 단 한치의 동요도 없이 최강의 자위적국방력과 핵전쟁억제력을 비상히 다져온 결과 장구한 세월 이 땅에서 그 어떤 침략세력도 감히 최악의 전쟁발발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명백히 하건대 우리는 적들이 건드리지 않는 이상 결코 일방적으로 전쟁을 결행하지는 않을것입니다.

이것을 그 무슨 우리의 나약성으로 오판하면 절대로 안될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자위적인 국가방위력이 오직 자기를 방어하고 전쟁을 막기 위한데만 국한되여있겠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나는 우리 핵무력의 전쟁억제라는 본령이외의 제2의 사명에 대하여 명백히 언급한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최대의 적국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에 병존하고있는 특수한 환경과 미국놈들의 주도하에 군사적긴장격화로 지역정세의 불안정성이 증대되는 현실을 랭철하게 고찰해보면 물리적충돌에 의한 확전으로 전쟁이 발발할 위험은 현저히 높아지고 위험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피할 생각 또한 없습니다.

전쟁이라는 선택을 할 그 어떤 리유도 없으며 따라서 일방적으로 결행할 의도도 없지만 일단 전쟁이 우리앞의 현실로 다가온다면 절대로 피하는데 노력하지 않을것이며 자기의 주권사수와 인민의 안전, 생존권을 수호하여 우리는 철저히 준비된 행동에 완벽하고 신속하게 림할것입니다.

전쟁은 대한민국이라는 실체를 끔찍하게 괴멸시키고 끝나게 만들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상상해보지 못한 재앙과 패배를 안길것입니다.

우리의 군사적능력은 이미 그러한 준비태세에 있으며 빠른 속도로 갱신되고있습니다.

만약 적들이 전쟁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공화국은 핵무기가 포함되는 자기 수중의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하여 우리의 원쑤들을 단호히 징벌할것입니다.

대의원동지들!

반제자주는 정의이고 진리이며 존엄과 주권, 평화와 안전은 이 길에서만 굳건히 수호될수 있습니다.

정의와 평화를 수호하며 진보와 발전을 지향하고 친선과 단결을 도모하는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대외정책적립장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반제자주를 절대불변하고도 일관한 제1국책으로 틀어쥐고 불법무법의 이중기준으로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무참히 유린하고 침탈하고있는 미국의 극악한 자주권침해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 평등과 호혜에 기초한 국제적정의를 실현하고 새로운 국제질서를 수립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해나갈것입니다.

대외사업부문에서는 격변하는 국제정치지형과 안보환경에 주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을 책략적으로,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우리 혁명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며 국권수호, 국익사수의 원칙에서 한치의 탈선이나 양보도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회주의나라들과의 관계발전을 우선과제로 내세우고 쌍무적, 다무적협조를 가일층 강화해나가며 국제적규모에서의 반제공동행동, 공동투쟁을 과감히 전개하고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모든 나라, 민족들과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단결하고 협력하면서 나라의 대외관계령역을 보다 확대하기 위한 사업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룩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의 과업들이 공화국정부가 당면하여 틀어쥐고 반드시 관철해야 할 주요정책입니다.

국가의 존위와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승리적전진을 위하여 결행되여야 할 성스러운 사업들이 어떤 결실을 맺게 되는가 하는것은 인민정권기관들의 역할에 크게 달려있습니다.

우리의 인민정권은 사회주의건설의 강력한 정치적무기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자입니다.

모든 인민정권기관들은 조선로동당의 사상과 령도에 무조건 충실하는 강철같은 사업체계와 질서를 세우며 수동적이며 관조적인 자세를 완전히 소거하고 자기 지역, 자기 단위앞에 제시된 당정책들을 주인답게, 용의주도하게 관철해나가야 합니다.

인민을 위해 존재하고 인민의 리익을 위해 복무하는 본연의 사명에 맞게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들이 우리 아이들과 매 공민들에게 정확히 가닿도록 무한한 책임성을 발휘하며 인민생활문제를 풀기 위한 사업들이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한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실지 덕을 주는 사업으로 되게 하여야 합니다.

지방경제를 추켜세우는 사업을 비롯하여 나라의 경제문제를 푸는데서 절실한 일감들을 스스로

걸머지고 끝까지 실현시켜 국가발전에 참답게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들은 사회주의제도를 옹호고수하고 공고발전시키는데서 응당한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각 단위와 주민들의 활동을 조직하고 지휘하는 행정에서 일심단결을 강화하고 인민들의 애국심을 분발승화시키는데 항상 관심해야 하며 우리 사회의 사회주의적성격을 엄격히 고수하고 원칙적인 통제와 관리로써 국가의 원활한 기능을 철저히 담보해야 합니다.

사회주의건설의 가일층 전진발전과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새년도 진군에서 대의원동지들이 지닌 사명과 책임은 의연 중대합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을 비롯하여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들은 인민의 지지속에 선출되여 국정에 직접 참여하면서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정부의 시책에 반영하고 그의 정확한 집행을 주도하며 나타나는 편향들을 적시적으로 대책하도록 건의하는 정치활동가들입니다.

대의원동지들이 인민의 대표자로서 자기의 위치와 권능을 옳게 자각하고 책무를 다하여야 당과 정부와 인민이 하나의 유기체로 이어지고 국가사회생활전반이 활기를 띠게 되며 인민을 위한 로선과 정책들이 철저히 관철될수 있습니다.

대의원들은 잠시도 자기만을 위한 보신이나 안일해이에 빠질 권리가 없으며 적극적이고도 알속있는 행동실천으로 국정집행을 담보하여야 합니다.

대의원동지들!

다시 강조하지만 오늘 우리 국가가 세계가 무시할수 없는 명성과 권위를 가지고 확실한 담보밑에 전면적부흥의 밝은 전도를 내다보게 된것은 어려운 세월속에서도 오로지 당과 공화국정권만을 굳게 믿고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온 위대한 인민의 고귀한 피와 땀, 값비싼 헌신의 대가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정책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성심다해 받들어나가는 인민들의 기대에 비하면 지금까지 이룩한 성과는 너무도 적으며 우리에게는 모진 곡경을 감내하며 바쳐온 인민의 헌신과 노력을 헛되이 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국력이 강해지고 자신심이 커질수록 우리 인민이 걸어온 시련에 찬 려정을 한시도 잊지 말고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야 하며 가까운 앞날에 인민들과 약속한 부유하고 문명한 시대를 기어이 펼쳐놓아야 합니다.

아직은 많은 난관이 존재하고 겪어야 할 시련이 눈앞에 있지만 우리의 리상과 위업은 진리이고 과학이며 승리를 안아올 배심과 기세도 충천합니다.

모두다 애국으로 굳게 단결하여 존엄높은 우리 국가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위대한 우리 인민의 행복과 영광을 위하여,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아갑시다.

위대한 우리 국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회의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회의가 1월 15일 수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 방청으로 당중앙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성, 중앙기관, 무력기관을 비롯한 중앙과 지방의 해당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인 김덕훈동지, 최룡해동지, 리병철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 군부의 간부들과 최고인민회의 의장, 부의장들, 국무위원회 위원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이 주석단에 자리잡았다.

최고인민회의 의장 박인철동지가 개회사를 하였다.

개회가 선언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주악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안들이 상정되였다.

첫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12(2023)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주체113(2024)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둘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함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공화국정부의 시정방침을 천명하시기 위하여 주석단에 나오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우리의 숭고한 리념, 우리의 성스러운 위업인 부국강병실현을 위한 력사적인 투쟁을 백승의 한길로 향도하시며 자주, 자립, 자위로 강대한 전면적국가부흥의 새 전기를 힘있게 펼쳐가시는 우리 당과 국가, 인민의 존엄의 최고대표자이신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강령적인 시정연설 《공화국의 부흥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당면과업에 대하여》를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과 국가의 성업에 대한 충실성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으로 자기의 책무를 다함에 고심하고 분투해온 대의원들에게 깊은 사의를 표하시고 새년도 국정을 론하는 본회의의 중심의제와 금후 공화국정부가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변혁과 개변을 다계단으로, 립체적으로, 공세적으로 이룩해나가는데서 나서는 중대과제들, 그 실행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의 복리증진을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운 당과 공화국정부가 가장 중시하고 품을 들여야 할 지상의 과업은 인민생활을 하루빨리 향상시키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지방의 세기적인 락후성을 털어버리고 지방인민들의 숙망을 풀어주기 위한 거창한 혁명으로 되는 새로운 지방공업발전정책과 그 실행을 위한 중대한 조치들을 만장에 선언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세계에서 가장 위태한 전쟁발발위험지역으로 화한 우리 국가의 안전환경과 미제와 추종세력들의 대결망동의 위험성을 엄정히 분석평가하시고 가장 철저하고 비타협적으로 결행해야 할 대적투쟁방향과 전투적과업들을 천명하시였다.

연설에서는 반제자주를 절대불변하고도 일관한 제1국책으로 틀어쥔 우리 국가의 존위에 맞게 대외사업부문에서 국권수호, 국익사수의 원칙을 견지하는데서 나서는 정책적문제들이 명시되였다.

위대한 사명감과 필승의 자신심으로 충만된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시정연설은 우리 당과 국가, 인민이 영웅적존엄과 백절불굴의 기개로써 중첩되는 국난과 위기를 용감히 타개하며 강국에로의 승리적전진을 가일층 촉진할수 있게 하는 전투적기치, 불멸의 혁명대강으로 된다.

회의에서는 첫째 의정으로 지난해 국가예산집행정형과 새년도 국가예산안을 토의하였다.

재정상 고정범대의원이 보고를 제기하였다.

보고에 이어 박정근대의원, 전학철대의원, 리영철대의원, 한남철대의원, 김명철대의원이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심의에 제출된 보고에서 지난해 국가예산집행이 정확히 총화결산되였으며 새년도의 국가예산이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정신에 립각하여 5개년계획완수의 명백한 실천적담보를 확보하기 위한 투쟁을 재정적으로 안받침하는 원칙에서 편성되였다고 하면서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였다.

그들은 지난해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 나타난 결함들을 엄밀하게 분석총화하면서 변화된 환경과 실정에 맞게 현실에서 걸린 문제들을 바로잡고 전망적발전의 원활한 추동을 도모할수 있는 대책적문제들을 제기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12(2023)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을 승인함에 대하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13(2024)년 국가예산에 대하여》를 전원찬성으로 채택하였다.

회의에서는 둘째 의정으로 대남기구들을 폐지할데 대하여 토의하였다.

북남대화와 협상, 협력을 위해 존재하던 기구들을 즉각 폐지해야 할 당위성과 적법성이 명기된 최고인민회의 결정초안을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맹경일대의원이 제기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함에 대하여》를 일치가결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의장 박인철동지가 폐회사를 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회의는 우리 국가와 인민의 존엄과 주권, 자주적발전을 굳건히 담보하며 국가부흥의 변혁적국면을 상승확대하기 위한 결정적인 투쟁의 전위에서 인민의 대표, 국정의 주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해나갈 참가자들의 비상한 정치적열의속에 자기 사업을 성과적으로 마치였다.

*　　*　　*

50년전, 2월의 선언

조선로동당 제3차 사상일군대회에서 결론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63(1974)년 2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63(1974)년 2월 19일 조선로동당 제3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결론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수령님의 존함과만 결부하여 부를수 있는 완전히 새롭고 독창적인 사상,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여 우리 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선포하시였다.

수령이 창시한 혁명사상을 체계화하고 정식화하여 혁명과 건설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제시하는것은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할뿐 아니라 수령의 혁명사상을 계승하고 발전풍부화해나갈수 있는 특출한 자질과 실력을 갖춘 위인만이 수행할수 있는 력사적위업이다.

수십년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오래전부터 어떻게 하면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겠는가 하는데 대하여 많이 생각하였으며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이 문제를 필생의 과업으로 내세웠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것을 필생의 과업으로 맡아안으신 위대한 장군님.

위인의 높이는 철학적높이, 사상의 높이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찌기 사회의 전반적부문에 대한 정력적인 령도를 펼치시는 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정식화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현지지도의 길에서도 두툼한 책들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차안에서, 숙소에서 밤을 지새우며 사색을 기울이시였고 학자들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독창성과 력사적지위에 대하여 론하시였다.

주체58(1969)년 7월 어느날 로동계급의 100년 사상사총화사업을 결속짓는 자리에서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혁명사상은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과 결부시켜 불러야 할것이라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제부터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과 결부시켜 정식화하고 체계화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자고 한다고 확고부동한 의지를 피력하시고 불면불휴의 사상리론활동을 벌려나가시였다.

주체60(1971)년 9월 량강도를 현지지도하실 때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낮에는 중앙과 도의 일군들을 만나시여 사업을 토의하시고 밤에는 밤대로 깊이 사색하시고 글을 쓰시며 새벽을 맞이하군 하시였다.

이 나날에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항일혁명투쟁사가 깃들어있는 무포를 찾으신 그이께서는 수행한 일군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오직 수령님의 존함과만 결부하여 부를수 있는 완전히 새롭고 독창적인 혁명사상이라는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우리는 가까운 앞날에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여 세상에 선포하고 **김일성**주의기치를 시대의 앞장에서 높이 추켜들고나가려고 한다고 하시면서 두만강의 흐름이 영원하듯이 **김일성**주의는 우리 시대뿐 아니라 미래의 공산주의사회에 가서도 인민들의 투쟁의 기치로 빛을 뿌리게 될것이라고 확언하시였다.

이렇듯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헌신에 의하여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가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되게 되였다.

지금으로부터 50년전인 주체63(1974)년 2월 19일 조선로동당 제3차 사상일군대회장에 나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라는 력사적인 결론을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는 우리 당의 최고강령이라고 말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김일성**주의는 한마디로 말하여 주체의 사상, 리론 및 방법의 체계이라고 다시말하여 주체사상과 그에 의하여 밝혀진 혁명과 건설에 관한 리론과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이라고 하시였다.

지금까지 수령의 혁명사상이 후계자에 의하여 정식화되고 계승발전되여왔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수령의 생존시에 그 력사적위업을 완전무결하게 실현하고 그것을 세상에 선포한 전례를 아직 알지 못하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수령님의 존함과만 결부하여 부를수 있는 완전히 새롭고 독창적인 사상,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여 우리 시대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선포하신것은 정녕 인류사적인 대사변이 아닐수 없었다.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여 조국인민과 진보적인류가 높이 들고나아갈 새로운 기치를 안겨주신 위대한 장군님은 진정 사상리론의 거장, 불세출의 위인이시다.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의 기치아래 조국은 사람도 사회도 자연도 달라졌다. 천만인민이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성장하고 자립경제의 굳건한 토대가 축성되였으며 그 어떤 강적도 감히 덤벼들지 못할 자위적국방력이 억척으로 다져졌다.

그처럼 어려운 고난의 시기에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활로가 열리게 된것도, 대규모 토지정리로 올망졸망한 뙈기논들이 규격포전으로 전변된것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펼치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의 격류가 낳은 고귀한 결실이다.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는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진군길에서 더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혁명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였다.

숭고한 도덕의리를 천품으로 지니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에 의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은 영원히 고수되고 길이 빛나고있으며 조선혁명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해나가는 새로운 력사적단계에서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전선길에 새겨진 사랑의 자욱

병사들과 하신 약속

주체84(1995)년 11월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 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문득 멀리 하늘가를 바라보시더니 벌써 마가을인가고 조용히 뇌이시였다.

그러시면서 자신께서 녀성해안포중대에 갔을 때 그곳 군인들과 가을에 감이 익으면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였는데 아마 지금 중대마당에 있는 감나무들에 감이 무르익었을것이라고, 최고사령관이 그들과 한 약속인것만큼 중대를 방문하여야 하겠으나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여 시간을 낼수가 없다고 하시였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동무들이 자신을 대신하여 중대에 가서 앞으로 훈련을 잘하여 중대의 전투력을 더욱 강화하기를 바란다는것을 말해주라고, 잊지 말고 전사들이 추운 겨울이 닥쳐오는데 찬 바다바람에 감기에 걸리지 않게 하라고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감이 익는 계절에 다시 오겠다고 병사들과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때로부터 2년후인 주체86(1997)년 11월 감나무중대를 또다시 찾으시였다.

병사와 찍으신 기념사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85(1996)년 3월 어느날 한 인민군구분대에 대한 현지시찰을 마치시고 귀로에 오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타신 승용차가 철령에 이르렀을 때는 땅거미가 깃들고있었다.

고개마루에서 차를 멈춰세우신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곳에서 근무를 서고있던 한 인민군전사의 무기장구류상태를 보아주시던 때를 돌이켜보시면서 보초병이 있으면 만나보고 가자고 하시였다.

3월이지만 해발고가 높은 철령은 몹시 추웠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추운 날씨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전사가 보초근무를 교대하고 올 때까지 20분이나 기다려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부르심을 받고 달려온 병사의 이름과 고향, 부모들에 대하여 그리고 군무생활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물어주시였으며 전사와 함께 령마루에서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언제나 병사들을 자신의 아들딸들이라고 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의 이야기는 수없이 전해지고있다.

병사들과 함께 맞으신 찬비

주체93(2004)년 4월 어느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느한 인민군부대 군인들의 전투훈련을 보아주시였다.

부대지휘관들의 안내를 받으시며 감시대에 오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관하구분대별로 진행하는 훈련모습을 보시면서 시종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그런데 훈련이 한창 고조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비구름이 몰려오더니 야속하게도 비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비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군인들이 훈련하는것을 감시대밖에 나가서 보자고, 군인들이 밖에서 찬비를 맞으며 훈련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시대안에서 훈련을 보겠는가고 하시며 밖으로 향하시였다.

앞을 막아서는 일군들에게 그이께서는 군인들이 비를 맞으며 훈련할 때에는 최고사령관도 함께 비를 맞아야 한다고 하시며 끝내 찬비뿌리는 곳에 나서시여 내리는 비를 고스란히 다 맞으시며 훈련을 끝까지 보아주시였다.

*　　*　　*

금도금공예 《보물바구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재중동포 리원룡가족이 드린 선물

주체96(2007)년 2월

조국수호의 70여년,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 70여년

2월 8일, 해마다 맞이하는 건군절이지만 국가부흥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 오늘날 건군절이 가지는 의미는 더욱 뚜렷이 부각되고있다.

영웅적조선인민군의 70여년의 력사, 그것은 조국의 안전과 인민의 행복을 믿음직하게 담보해온 성스러운 력사이다.

돌이켜보면 조선인민군은 조국과 인민의 안전과 안녕을 믿음직하게 수호함으로써 불패의 혁명강군의 위용을 만방에 떨치였다.

보병총과 원자탄의 대결이라고 할수 있는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에서 조선이 승리하리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조차 못하였지만 조선인민군은 침략자들을 쳐물리치고 위대한 전승신화를 창조하였다.

그후 조선인민군은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과 《EC-121》대형간첩비행기사건, 판문점사건을 비롯하여 적대세력들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셔버리고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영예롭게 수호하였다.

오늘 영웅적조선인민군은 각종 공격 및 방어수단, 억제수단들을 보유하고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범접 못하는 무적의 강군으로 위용떨치고있다.

실로 전쟁의 불구름이 항시적으로 밀려왔어도 조국인민이 수십년동안 전쟁을 모르고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있는것은 조선인민군의 무진막강한 위력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이뿐이 아니다.

조선인민군은 국가의 부흥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투쟁에서도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는 핵심력량으로 자기의 실체를 뚜렷이 과시하고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진격로를 열어나가는 개척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라는데 조선인민군의 위력이 있다.

성스러운 군기에 조국과 인민이라는 글자를 새긴 조선인민군은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서 영웅적기상과 본때를 남김없이 보여주고있다. 조국의 지도를 나날이 변모시키고 년대와 년대를 압축하며 인민을 위한 창조물들을 련이어 떠올리는것은 인민군대의 기풍이고 본때이다. 불과 23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일떠선 대규모의 련포온실농장, 재해가 휩쓴 험지에 우후죽순처럼 솟아난 행복의 보금자리와 인민의 리상거리를 비롯하여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에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인민군대의 고귀한 땀방울이 슴배여있다.

최대비상방역전의 나날 수도비상방역전에 진입하여 환자들을 위해 피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치는 소행과 인민들의 소박한 성의도 마다하며 물과 공기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군의들의 모습은 인민군대의 고결한 사상정신세계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국가의 부흥발전과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길에서 특유의 사명감을 백배하며 용감성과 희생성, 헌신성과 정성을 남김없이 발휘한 인민군군인들의 특출한 위훈은 조국청사에 금문자로 아로새겨져있다.

지금 이 시각도 조선인민군 장병들은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장과 강동온실농장건설장, 검덕지구에서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하기에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 인민군장병들의 심장의 박동과도 같은 이 구호를 들을 때마다 조국인민들은 조선로동당의 령도에 끝없이 충실한 조선인민군을 가지고있는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깊이 절감하고있다.

본사기자 김지성

조선인민군 공군부대의 직승기들이 침수피해를 복구한 강원도 안변군 오계농장과 월랑농장 농경지들에 대한 농약살포를 진행하였다.

최대비상방역시기에 당중앙의 특별명령에 따라 수도의 방역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인민군대 군의부문의 강력한 력량이 긴급투입되였다.

불과 230여일동안 280정보의 부지에 850여동의 온실들과 1 000여세대의 살림집, 학교, 문화회관, 종합봉사시설들을 건설하였다.

구국군과 함께

(전호에서 계속)

나는 그 산동사람의 말씨를 약간 본따서 중국말로 대답했다.

《우리는 안도에서 온 구국군별동대요. 나는 별동대 대장 **김일성**이요. 당신네 사령을 만나러 왔으니 안내해주오.》

《**김일성**? **김일성**별동대면 공산당이 아닌가?》

얼굴에 마마자국이 뚜렷한 두번째 보초가 입속으로 내 이름을 중얼중얼 외우며 미심쩍은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아마 **김일성**부대가 공산당부대라는 말을 어디서 얻어듣고 기억에 새겨두었던 모양이였다.

《우리는 우사령의 별동대다. 당신 우사령도 모르는가?》

내가 위엄을 풍기며 이렇게 따지자 마마자국이 있는 보초는 《아, 우사령! 그 사람 알고있소. 그 사람부대 남호두에서 왜놈의 기관총 로획했소. 우사령 대단한 사람이지.》하면서 엄지손가락을 흔들어보이였다.

결국은 우사령별동대라는 명함장이 은을 낸셈이였다. 중국인반일부대들이 있는데서는 이 명함장이 맥을 추었다. 그래서 우리는 행군을 할때에도 반일부대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늘 구국군 조선인별동대라는 간판을 들고다니였다.

잠시후 산동말을 하던 첫번째 보초가 병영에 들어가서 풍채좋은 사나이를 데리고나왔다. 그때 당시의 구국군들이란 대체로 옛 장학량군시절의 군복을 그대로 입고있었다. 그런데 방금 보초를 따라 정문에 나타난 장교는 이상하게도 반소매에 가랭이가 무릎에도 채 닿지 않는 짧은 바지를 입고 발에는 포화를 신었다. 머리카락도 기름을 발라 윤기가 나고있었다.

《아, 이거 김성주주임이 아닌가?》

그것은 이름대신 《장꺽다리》라는 별명으로 불리우던 육문중학교시절의 동창생 장가였다. 그가 나를 주임이라고 한것은 내가 육문중학교에서 공부할 때 맡아보았던 도서주임직을 념두에 둔것이였다. 장가는 학생시절에도 나를 늘 《김주임》이나 《성주주임》이라고 불러주며 호의적으로 대해왔었다.

우리는 반갑게 손을 마주잡고 한참동안 학창시절의 회포를 나누었다. 해수로 계산하면 그와의 상봉은 3년만에 이루어진셈이였다. 나는 감옥을 나온 다음 학우들에게 작별인사도 남기지 못하고 총총히 길림을 떠난것을 후회하였다. 혁명을 위해 사사로운 모든것을 다 희생시킨다는 정신을 가지고 동분서주하던 때여서 어찌 보면 불가피한 일같기도 하였지만 스승들과 학우들에게 인사를 남기지 못하고 떠났다는 그 도덕적인 빚이 마음속에 연뎅어리처럼 무겁게 매달려 나를 괴롭힐때도 없지 않았다.

장가를 만나고보니 이미 지평선너머로 사라져버린듯한 육문중학교시절의 가지가지 정경들과 그 시절에 맛보던 랑만적인 학생기분이 되살아올랐다. 나는 군화소리가 어지럽게 들리는 병영마당이 아니라 정향꽃향기가 진동하는 육문중학교 정원에 서있는것같은 느낌까지 들었다. 장가의 손을 잡고 그대로 병영문을 나서면 북산에도 가닿고 송화강바람도 쏘일수 있을것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가슴을 짜릿하게 하는 이상야릇한 향수였다.

장가는 학창시절에 그랬던것처럼 내 팔을 허물없이 잡아끼고 이따금씩 큰소리로 웃어대면서 나를 자기 방으로 안내하였다.

《우리 학교 졸업사진에 김주임의 얼굴이 없는건 정말 유감이야.》

그는 나에게 의자를 권하면서 이런 말부터 꺼냈다.

《우린 졸업사진을 찍으면서도 그냥 김주임의 이름을 외웠댔어. 김주임이 학교를 중도반단하지 않았더라면 1등생이 되여 상을 탔을거라구. 혁명이라는게 중학공부를 단념할 정도로 그렇게도 성주를 유혹하던가?》

나는 웃으면서 유쾌한 롱질로 그 말을 받아넘기였다.

《암, 물론이지. 너두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해서 이렇게 싸창을 차구 자위군의 장교가 된게 아니겠어.》

장가는 그 말을 듣자 눈을 슴벅거리며 내 손등을 툭툭 두드렸다.

《그건 그래. 9. 18전만 해두 우린 세상물정을 모르고 살아온 속물들이였지. 그런데 일본이 만주로 쳐들어오는것을 보고서야 잠에서 깨여났거든.》

《그것 보라구. 그러게 내가 뭐랬나. 사람은 정치밖에서 살수 없다구 하지 않던가.》

《그땐 그 말을 귀등으로만 들었댔단 말이야. 아, 시국이 왜 이리도 급전직하로 변해가는지 모르겠다. 이 만주땅이란 미친 바람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뒤처럼 살풍경이란 말이야.》

나는 장가가 시국을 옳게 평가하였다고 생각하였다.

만주를 무대로 하여 펼쳐지고있는 력사의 흐름은 실로 세상사람들을 경악케 하는 놀라운 변화들로 가득차있었다. 그 변화는 사람들의 운명에도 무자비한 곡절을 빚어놓았다. 장가자신도 몇해전까지는 베이징대학에 가서 력사학공부를 해볼 포부를 가지고있었던 사람이였다. 일본군이 만주를 집어삼키는것을 보자 그는 력사학을 전공하려던 학창시절의 꿈을 버리고 분연히 자위군에 입대하였다.

선비중의 선비라는 평판을 들으며 두보의 시행들에 흐르고있는 목가적이고 평화로운 정서를 친절하게 풀이해주던 류본초선생이 구국군의 참모장이 되여 초연속을 헤치게 되리라고야 누가 상상인들 했겠는가.

《이것 보라구 김주임, 9. 18덕분에 나도 군복을 입은 호걸남아가 되였어.》

장가는 이런 말을 하고나서 서글픈 웃음을 지었다.

《군복을 입은거야 너뿐인가. 나도 군인이 되여 몽강에까지 흘러오지 않았나. 동창 대 동창으로서뿐 아니라 군인 대 군인의 자격으로 이렇게 마주앉아 대세까지 론하고있으니 이거야말로 얼마나 멋들어진 연분인가.》

그는 이게 다 일본놈들의 《덕》이라고 하면서 그놈들의 《덕》에 사람들이 좀 총명해진것 같다고 하였다.

알고보니 몽강의 자위군부대에는 장가외에도 육문중학교시절의 동창생이 여러명 있었다. 나는 그날 저녁 그들과 함께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치와는 담을 쌓고 립신양명의 길만을 꿈꾸어오던 그들이 목에 핏대를 세워가지고 일본을 규탄하고 장개석을 중화민족이 낳은 최대의 기형아라고 조소하는것을 볼 때 나는 만족감을 금할수 없었다.

우리는 밤늦도록 반일인민유격대와 자위군사이의 공동행동문제도 협의하였다. 자위군의 지도부에 있는 동창생들은 우리 부대와의 합작을 환영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조국의 국풍

매 가정들에 대를 이어가는 가풍이 있듯이 나라들마다 세대를 이어 전해가는 국풍이 있다.

혼연일체

주체조선의 제일국력인 일심단결의 기상을 과시하며 나아가는 군중시위참가자들

령도자와 인민이 사상과 뜻을 같이하고 생사고락을 함께 해나가는것은 조국의 제일가는 국풍이다.

돌이켜보면 우리 조국은 그 어떤 신비한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수령의 사상과 뜻을 받들어 발걸음을 함께 해나가는 인민의 단결된 힘에 의하여 줄기차게 전진하여왔다.

국가적후방이나 정규군의 지원도 없는 최악의 조건에서 간악한 일본제국주의를 쳐물리친 조국해방의 업적도,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의 거만한 코대를 꺾어버린 영웅조선의 전승신화도, 전후 재더미만 남은 빈터우에 전설속의 천리마를 떠올리고 남들이 걸어온 수세기를 도약하여 단 14년만에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한 자랑찬 성과도, 1990년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며 사회주의건설의 튼튼한 도약대를 마련한것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조국인민이 굳게 뭉쳐 쟁취한것이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혼연일체의 위력은 최상의 경지에서 과시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마음속 첫자리에는 언제나 인민이 있고 인민은 일편단심 그이만을 믿고 따르고있다.

어려울수록 인민들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고 조건의 유리함과 불리함에 관계없이 인민을 소중히 품어안아 사랑과 정을 깡그리 기울이며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드는 인민의 마음은 더욱더 뜨거워져 이 땅우에서는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들이 련이어 일어나고있다.

이 위대한 혼연일체, 일심단결이야말로 그 어떤 난국도 뚫고나갈수 있고 그 어떤 대업도 성취할수 있게 해주는 조국의 절대병기이다.

자력갱생의 전통

자기의것을 귀중히 여기며 자기의 힘으로 앞길을 개척해나가는 투쟁기풍도 조국의 자랑스러운 국풍이다.

자력갱생, 이것은 조국의 전진방식, 창조본때이며 조국인민의 투쟁기질이라고 할수 있다.

우주만리를 날으며 지구를 굽어보는 인공지구위성, 주체철과 주체비료, 주체비날론, 새형의 무궤도전차들과 궤도전차들, 지하전동차를 비롯하여 이 땅에서 창조된 모든것이 그처럼 소중한것은 바로 남의 식이 아니라 자기식으로 창조하고 마련한것이며 인민의 피와 땀이 스며있기때문이다.

룡성의 로동계급이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생산한 대형압축기들

조국이 걸어온 장구한 기간 남을 쳐다보고 남의 힘을 기대했다면 오늘의 높은 존엄과 긍지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을것이다.

자력갱생의 궤도우에서 강국건설의 억년기틀이 마련되였고 조국은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솟구쳐오르게 되였다.

자력갱생에 조국의 영원한 승리가 있고 찬란한 미래가 있다.

백두밀림에서 창조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이 전사회적인 풍조로, 국풍으로 되고있기에 조국인민앞에는 뚫지 못할 난관, 점령 못할 요새가 있을수 없다.

공기처럼 흐르는 덕과 정

공기가 희박해지면 생명체가 살수 없다. 그렇듯이 덕과 정이 결여된 사회에서는 참된 생활이 창조될수 없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도 형성될수 없다.

조국에서는 사람들 누구나 서로 돕고 이끌며 덕과 정을 나누면서 화목하게 살고있다.

아파하는 사람을 뜨겁게 위해주고 불편해하는 사람은 부축해주며 힘들어하는 사람을 사심없이 도와주는 사실들은 그리 놀랍지 않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처녀의 몸으로 부모잃은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여주고 수년동안 하루와 같이 불구가 된 학생을 업고 학교로 오고간 담임교원, 꺼져가는 생명을 위해 자기의 피와 살을 바치는 의료집단, 물에 빠져 떠내려가는 제 딸보다 남의 집 아이를 먼저 구원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인간에 대한 사랑이 공기처럼 흐르고있는 이 아름다운 덕과 정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에 그 뿌리를 두고있다.

온 사회에 서로 도와주고 위해주는 미풍이 확립되여있기에 조국은 그 어떤 고난과 시련이 앞을 막아서도 생기와 활력에 넘쳐 승승장구하고있는것이다.

전쟁로병들의 친딸이 되여 그들의 건강과 생활에서 사소한 불편이 있을세라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있다.

인재중시, 과학기술중시

교육강국, 인재강국의 주인이 될 일념 안고 누구나 과학기술전당의 열성독자가 되고있다.

조국에서는 누구나가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앞세우는것을 가사처럼 여기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108(2019)년 4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자립경제발전의 기본동력은 인재와 과학기술이라고 하시였다.

과학기술을 중시해나가는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정책에 의해 전사회적으로 과학기술보급체계가 정연하게 세워졌으며 과학기술보급사업을 맡아할 거점으로서의 과학기술전당이 훌륭히 건설되였다. 공장과 농장은 물론 도, 시, 군, 리에 이르기까지 선진과학기술이 물이 흐르듯 온 나라 방방곡곡에 흘러들어 가고있다. 조국의 그 어느 일터에 가보아도 선진과학기술을 습득하고 가치있는 기술혁신으로 생산정상화에 이바지하며 자기 단위발전을 추동해가는 근로자들을 볼수 있다.

뿐만아니라 자기 단위에 필요한 인재를 자체로 키우고 과학기술력량을 꾸리는 사업이 콩나물을 길러먹듯 방법론을 가지고 품들여 체계적으로 진행되고있다.

인재와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것을 자기 부문, 자기 단위 발전의 생명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고있기에 조국의 미래는 나날이 앞당겨지고있다.

원동력

조국의 자랑스러운 국풍의 하나인 군민대단결은 인민과 군대가 도덕의리적으로, 혈연적으로 굳게 뭉쳐 사상정신과 투쟁기풍에서의 일치를 실현한 완벽한 단결이다.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는것처럼 유격대가 인민을 떠나서 살수 없다》, 항일의 전구들에 높이 울려퍼졌던 이 구호의 정신은 년대와 세대를 넘어 오늘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으로 계승발전되고있다.

군민의 혈연적관계는 총포탄이 비발치는 전화의 나날에 더욱 공고화되였고 조국사수, 사회주의건설의 줄기찬 투쟁속에서 끊임없이 계승발전되여왔다.

조국의 사회주의건설의 전 과정도 그러하였지만 최근년간에 이룩되고있는 의미있고 소중한 성과들은 군민대단결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는것이다.

인민군대는 피해복구지역에 제일먼저 달려나갔으며 수도의 5만세대 살림집건설 등 인민의 행복을 창조하는 사업에서 선봉대의 역할을 수행하고있다.

주체조선특유의 참모습이며 위대한 힘인 군민대단결을 원동력으로 하여 전진하는 조국의 앞길은 누구도 막을수 없을것이다.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에서 군민대단결의 힘으로 새로운 건설신화, 건설기적을 창조하였다.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일어나고있는 모든 기적과 변혁은 바로 조국의 국풍이 안아온 결실이다.

글 본사기자 연옥

인민적시책이 그대로 가닿도록 하겠다

평양시 보통강구역인민위원회 부위원장 강림과 본사기자와의 대담

기자: 우리 공화국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근본중의 근본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국가사회생활전반에서 인민적인것, 대중적인것을 최우선, 절대시하며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함에 모든것을 아낌없이 돌리고있다.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 이것이 우리 공화국정권의 참모습이라고 본다.

부위원장: 그렇다.

인민의 복리증진은 우리의 인민정권,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되고있다. 우리 인민정권은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훌륭한 물질문화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는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일할 나이가 되면 누구나 다 국가로부터 능력과 소질에 맞는 일자리를 보장받고있으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르는 분배와 혜택을 받고있다. 그리고 탁아소와 유치원어린이들은 젖제품을, 소학교생으로부터 대학생들에 이르기까지는 교복과 책가방, 학용품을 공급받고있다. 근로자들의 살림집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장해주고있는것이 조국의 현실이다. 최근년간 수도 평양에 일떠선 송화거리와 화성지구 1단계 1만세대 살림집들, 전국각지의 농촌들에 건설된 농촌문화주택들, 지방공업발전의 본보기로 솟아난 강원도 김화군의 지방공업공장들과 련포온실농장 등의 창조물들은 우리 인민정권이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진 호주로서의 역할을 얼마나 훌륭히 수행하고있는가를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뿐만아니라 우리의 인민정권은 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정신문화생활을 마련해주고있다. 조국에서는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을 인민들모두가 받고있으며 무료의무교육제의 실시로 누구나 배움의 권리를 가지고 자기의 지혜와 재능을 활짝 꽃피워가고있다. 제일 좋은 명당자리에 학생소년들의 야영소와 근로자들의 문화휴식터가 건설되고 인민들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있는것이 조국의 참모습이다. 마식령스키장과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와 양덕온천문화휴양지, 옥류아동병원과 류경안과종합병원을 비롯하여 도처에 일떠선 현대적인 문화정서생활기지들과 종합적인 의료봉사기지들은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로서의 기능을 원만히 수행하고있는 우리 인민정권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힘있는 증시로 된다.

기자: 이러한 현실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에 철저히 구현해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로고와 심혈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고 본다.

부위원장: 옳은 말이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 기슭에서 우리의 인민정권은 나라살림살이의 주인,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로서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는 정권이라는데 대하여 밝히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인민사랑의 감동깊은 화폭들을 이 땅우에 끝없이 펼치시였다.

억수로 쏟아지는 소낙비를 맞으시며 평안남도 양덕군안의 온천지구를 현지지도하신 그이께서는 80℃의 온천물에 손을 담그어보시면서 이곳을 인민의 문화휴양지로 꾸릴 구상을 펼치시였다. 그리고 악성비루스가 경내에 침습해들어왔을 때에는 몸소 평양시내의 약국들을 비롯한 방역현장에까지 나가시여 인민의 생명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방역대전을 진두에서 지휘하신 그이이시였다.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시는 그이의 헌신은 결코 이뿐이 아니였다.

지난해 8월말에도 그이께서는 우리 나라의 서부 안석간석지 피해복구현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인민생활을 책임진 우리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의 자세와 립장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다시금 깊이 새겨주시였다. 그때 재해로 인해 침수된 논면적은 나라의 전체 부침땅면적에 비해볼 때 얼마 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논밭 한평한평이, 하나하나의 벼포기들이 바로 인민의 헌신의 땀이 깃든 귀중한 재부이기에 그이께서는 바다물이 허리치는 논에 서슴없이 들어서시여 침수된 벼포기들을 쓰다듬으시며 피해대책을 세워주시였다.

이렇게 이어가신 멸사복무의 줄기찬 려정에서 위대한 어버이, 위대한 스승의 손길로 일군들을 걸음걸음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시며 인민의 참된 복무자로 키워주신 감동깊은 이야기들은 그 얼마인지 모른다.

참으로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들고 섬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투철한 복무정신에서 우리의 모든 일군들은 인민의 참된 복무자, 충복의 참의미가 무엇인가를 심장으로 절감하였으며 인민의 충직한 아들딸로 살며 일해나갈 멸사복무의 각오를 더욱 굳게 가다듬게 되였다.

기자: 지금 우리의 정권기관들이 인민을 위한 좋은 일들을 전개하고있는데 보통강구역인민위원회에서는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있는지 그에 대해 알고싶다.

부위원장: 우리 인민위원회 일군들은 당과 정부의 인민적시책이 인민들에게 그대로 가닿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일군들이 구역안의 동들을 맡아 현지에서 걸린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풀어주고있으며 주민들의 생활을 구석구석 료해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우고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보다 안정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해 살림집건설, 수원지능력확장과 상수도시설보수 및 교체 등 많은 사업들을 계획하고 적극 추진하고있다.

지금 구역안의 일군들은 누구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인민관을 가슴에 새기고 지역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졌다는 자각을 안고 인민에게 진정을 기울이고 인민을 위해 밤낮이 따로없이 뛰고 또 뛰는 인민의 참된 심부름군이 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고있다.

기자: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어 감사하다.

정치용어해설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는 인민대중의 존엄과 권익을 절대적으로 옹호하고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정치이다.

인민의 세상인 사회주의사회에서 정치는 마땅히 인민을 위한 정치로 되여야 한다. 사회주의를 요구하는것도 인민이고 사회주의의 기초도 인민이며 사회주의의 전진동력도 인민대중의 정신력과 창조력이다. 인민을 중시하는 정치, 인민에게 복무하는 정치를 하지 못하면 사회주의가 좌절되게 된다.

조선로동당은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당의 존망과 사회주의의 성패를 좌우하는 근본문제, 기본정치방식으로 전면에 내세우고 강력히, 일관하게 실시하여왔다.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가 구현되였기에 조국인민은 당의 위업을 받드는 길에서 사소한 변심을 몰랐으며 조선로동당은 자기의 붉은 기폭에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을 아로새길수 있었다.

정세가 아무리 엄혹하고 난관이 중첩되여도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철저히 구현하면 불리한 모든 주객관적요인들을 능히 극복하고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방대한 과제들을 용이하게 해결해나갈수 있다는것이 조선로동당이 가장 간고한 조선혁명을 이끌어오는 과정에 확증한 귀중한 철리이다.

* * *

금후 공화국의 총적투쟁방향

지난해 12월 공화국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가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첫째 의정에 대한 강령적인 결론 《2024년도 투쟁방향에 대하여》에서 금후 공화국의 총적투쟁방향에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총적투쟁방향은 완강한 투쟁으로 쟁취한 유리한 형세와 국면을 더욱 확대하고 적극 활용하여 당 제8차대회의 투쟁강령을 성과적으로 실현하며 앞으로의 새로운 전진을 위한 발판을 닦는것이다.

총적투쟁방향은 나라의 현실적조건과 잠재력을 충분히 타산한데 기초하여 세워진 과학적인 목표이다.

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지난 3년간의 투쟁에서 조선로동당과 인민은 당 제8차대회의 투쟁강령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고 앞으로의 새로운 전진을 위한 발판을 닦아놓을수 있는 현실적조건과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있음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결코 순탄치 않았던 5개년계획수행의 중반기를 성공적으로 경과하며 우리 국가의 힘과 존위는 비할바없이 강대해졌다.

국방분야에서 새로운 전략무기들이 련속적으로 탄생하고 국가방위력전반이 급진전하였으며 우주정찰자산까지 보유함으로써 공화국은 군사강국의 지위에 확고하게 올라서게 되였다.

인민경제발전을 위한 지배적고지인 농업전선에서 관개건설목표가 앞당겨 완수되고 보기드문 풍작을 이룩한것을 비롯하여 12개 중요고지들에서 련이어 승전고가 울려퍼지였으며 수도와 전국각지에서는 현대적인 새 거리들과 문명을 자랑하는 농촌살림집들, 창조물들이 일떠서 온 한해가 새집들이와 준공의 경사로 들끓었다.

특히 대중적인 애국운동이 활발히 벌어지는 과정에 당과 혁명, 조국을 먼저 생각하고 나라의 어려움을 가시는데 보탬을 주려는 뜨거운 마음을 지닌 애국자들의 대부대가 성장한것은 억만금에도 비길수 없는 가장 커다란 정치적성과로 된다.

총괄적으로 당 제8차대회이후 국방분야만이 아니라 경제와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눈에 띄는 전진이 이룩되고 사람들의 사상정신적면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남으로써 앞으로의 투쟁에서 더 큰 승리를 안아올수 있는 현실적조건과 잠재력이 마련되고있다.

총적투쟁방향은 다음으로 계속혁신, 줄기찬 투쟁으로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안아올데 대한 계속혁명에 관한 사상의 요구를 반영한 가장 혁명적인 목표이다.

지난해는 당 제8차대회가 내세운 투쟁강령을 실현하기 위해 완강히 전진하고있는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해였다.

하지만 3년나마 지속된 국제적인 공중보건비상사태가 해제된 이후로도 국가적으로 실시한 엄격한 방역조치로 인한 모든 부문의 제약과 적대세력, 방해세력들의 극악한 제재압박 등으로 하여 지난해 조국인민은 참으로 어려운 고비와 조련치 않은 국면에 직면한 속에서 한해 진군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대내외적으로 조성된 형세와 필수적으로 나선 중대과업들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멈춤없는 계속전진, 줄기찬 투쟁을 벌리도록 하시였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인민은 완강한 투쟁으로 5개년계획수행의 세번째 년도를 단순히 경과한 정도가 아니라 사회주의건설과 국력강화의 각 방면에서 앞으로의 전진속도를 더욱 가속할수 있는 유리한 조건과 든든한 발판을 구축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쟁취하였다.

결과 불리한 형세와 국면이 우리 혁명발전에 유리한 형세와 국면으로 반전되게 되였으며 당 제8차대회 과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가장 어려운 고비, 극한점을 돌파하게 되였다.

하기에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당 제8차대회의 투쟁강령을 실현하는것과 함께 앞으로의 새로운 전진을 위한 발판을 닦는것을 금후 공화국의 총적투쟁방향으로 제시해주시였다.

사회과학원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
연구사 김성현

반 향

더 높은 알곡증산으로

평양시 력포구역
소신남새농장
경리 강봉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받아안은 우리 력포구역 소신남새농장의 농업근로자들은 올해에도 기어이 알곡생산목표를 넘쳐 수행할 열의에 넘쳐있다.

지난해 우리 농장은 당의 웅대한 농촌건설구상에 따라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자기의 면모를 일신하였으며 과학농법을 적극 받아들여 맡겨진 알곡생산과제를 수행하였다.

지금 우리 농장원들의 기세는 대단히 높다. 누구나 다수확농민이 되기 위해 새해 영농준비사업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농장원들의 앙양된 이 열의가 그대로 알곡생산성과에로 이어지는가 못이어지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우리 일군들의 역할에 달려있다.

생산자대중의 주인다운 자각을 더욱 높여주고 과학적이며 알심있는 농사지도를 하겠다.

하여 우리 농장이 맡은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겠다.

인민경제계획을 드팀없이

전력공업성
국장 한경진

새로운 희망과 열의에 넘쳐 새해 2024년을 맞이하고보니 가슴이 벅차오른다.

지난해 인민경제전반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우리 전력공업부문에서는 화력발전소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구축하고 수력발전소들의 발전효률을 높이면서 수요에 의한 월별 생산계획을 드팀없이 수행하였다. 그리고 주요송전선로들에 최량화된 전력계통을 구성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초고압철탑가공공정을 확립하여 전력도중손실을 줄일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올해에 우리 전력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더욱 앙양되고 분발된 투쟁을 벌려 2024년을 새롭고 의의있는 성과들로 장식해나갈 열의에 넘쳐있다.

우리는 현행전력생산에 박차를 가하면서도 전망성있는 방안들을 더 많이 찾아 계획적으로 진행해나감으로써 인민경제계획을 드팀없이 수행해나가겠다.

조선로동당의 옳바른 령도가 있는 한 우리는 올해에도 반드시 새로운 승리를 이룩할것이다.

북방의 대야금기지

김책제철련합기업소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사상과 정신을 높이 받들고 김책제철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이 진군의 보폭을 힘차게 내짚고있다.

6년전 자체의 힘과 기술, 원료와 연료에 의한 철생산체계를 확립하여 세기를 이어온 콕스의 멍에를 완전히 벗어던진 김책제철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은 지난해에 에네르기절약형산소열법용광로와 1만 5 000㎥/h산소분리기들을 증설하였다.

하여 김철의 주체철생산능력은 2배이상으로 장성하게 되였으며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더 많은 철강재를 보내줄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였다.

이 기세를 늦춤없이 김철의 로동계급은 금속공업의 자립적이며 지속적인 발전을 선도하고 경제전반을 강력히 견인해나가기 위하여 새해 첫날부터 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리고있다.

생산의 선행공정을 담당한 용광로1직장에서는 기대공들이 에네르기절약형산소열법용광로의 기술적특성에 하루빨리 정통하도록 하는 한편 필요한 원료, 연료를 선행시키면서 로의 정상가동을 보장하고있다.

또한 산소분리기분공장에서는 증설된 1만 5 000㎥/h산소분리기를 비롯한 설비들에 대한 관리를 책임적으로 하고 그 운영을 과학기술적으로 담보하여 대당 산소생산량을 끌어올리고있다.

하여 철의 기지의 용광로들에서는 용암과도 같은 붉은 쇠물이 쏟아지고있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조선중앙통신

3개의 우승띠를 받은 태권도선수

김유심은 2021년과 2023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선수로 선정되였다.

김유심(오른쪽)과 그의 감독 사옥진(왼쪽)

지난해에 진행된 제22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에서 룡악산태권도선수단 선수 김유심은 녀자개인맞서기, 개인틀, 개인위력경기에 출전하여 주목되는 우승후보자들을 물리치고 금메달수상자로 되였으며 성인부류 녀자개인기술상을 쟁취하였다.

그가 국제경기무대에서 첫선을 보인것은 주체105(2016)년에 진행된 제12차 청소년 및 제7차 로장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였다.

그때 46kg급 녀자개인맞서기경기에 나갔던 김유심선수는 벌가리아선수를 보기 좋게 물리치고 1등을 하였다.

국제태권도련맹 심사성원들은 국제경기에 처음으로 출전한 선수가 거둔 성과를 진심으로 축하해주었다.

김유심선수는 태권도틀과 맞서기, 위력에 정통한 다종목선수이다.

사실 한 선수가 세부종목들까지 다 완벽하게 수행하기는 헐치 않다. 그만큼 선수의 육체적준비가 좋아야 하는것은 물론 정황에 대처할 지적수준과 기술도 매우 높아야 하기때문이다.

김유심선수는 다종목선수로 자신을 끌어올리기 위해 배가의 노력을 기울이였다.

황해북도태권도선수단에서 선수생활을 한 그는 태권도의 기초동작들과 함께 많은 기술수법들을 수련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금메달이 그에게 차례진것은 아니였다.

그는 주체101(2012)년 전국태권도선수권대회 녀자개인맞서기경기 예선단계에서 욕망만 앞세우던 나머지 기회를 놓처버렸다.

유심은 그다음부터 육체적 및 정신적극한점을 이겨내야 하는 모진 훈련계획을 세웠다.

스스로 마음의 출석을 그으며 그는 휴식일에도 훈련장에 남먼저 들어섰고 마지막선수로 남군 하였다.

이런 나날이 반복될수록 그는 맞서기에서 활용되는 180° 돌려차기, 뛰며2회주먹지르기를 비롯한 난도동작들을 어렵지 않게 수행하게 되였다.

락수가 바위를 뚫듯 꾸준한 훈련끝에 그는 주체103(2014)년 전국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받았으며 그 다음해에 진행된 경기에서는 42kg급 녀자개인맞서기경기와 개인틀경기에서 2개의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그는 그후 국제경기들에서 더욱 멋진 경기모습을 펼쳐보이였다.

특히 주체112(2023)년 제22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 52kg급 녀자개인맞서기경기가 그러하다. 선수권대회에서 그와 맞다든 선수들중에는 이미전에 진행된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에서 순위권에 들었던 선수들도 있었고 기술이 높고 로련한것으로 하여 우승후보자로 주목되는 선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경기를 주동적으로 진행하였으며 난도높은 동작들을 손색없이 수행하여 예선에서부터 훌륭한 경기장면을 관중들에게 보여주었다.

뿐만아니라 개인틀경기와 개인위력경기에서 완전무결한 동작수행으로 심판원들을 매혹시켰고 단체틀경기와 단체맞서기경기 등에서도 팀이 우승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하여 5개의 금메달과 개인경기에서 우승한 선수들에게만 수여하는 우승띠를 3개나 받았으며 성인부류녀자개인기술상의 주인공으로 되였다.

우승의 시상대에서 김유심선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의 장중한 주악속에 게양되는 람홍색공화국기를 우러르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였다.

그 눈물은 사람들에게 뜻을 품고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는것을 시사해주었다.

글 본사기자 김승기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제22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 52kg급 녀자개인맞서기경기에서 우승한 김유심

전문가들은 로력영웅, 인민체육인인 장경옥이 2021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우수감독으로 선정된 태권도강자 인민체육인 사옥진을 키웠고 사옥진이 키워낸 선수가 김유심이다, 전도유망한 20대의 태권도처녀, 앞으로 그가 어떤 경기모습을 보여주겠는지 기대된다고 평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81돐을 맞으며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보고대회에서 보고를 하는 최수봉부의장

해마다 광명성절을 맞으며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보고대회가 진행되고있다.

광명성절과 동포들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이하게 될 조국은 어디 가나 경축분위기로 들끓고있다.

광명성절경축행사들이 중앙과 지방에서 다채롭게 준비되고 어느 가정에서나 노래 《2월은 봄입니다》, 《그리움은 끝이 없네》 등이 울려나오고있다.

경축분위기에 휩싸인 거리와 사람들의 모습을 보느라니 몇년전 평양고려호텔에서 만났던 재중동포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어느해인가 조국에서 진행되는 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에 왔던 그들은 짬시간이면 경축무대에 내놓을 공연준비로 여념이 없었다.

특히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동포들의 열정에 넘친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한평생 나라일을 돌보시는 바쁘신 속에서도 동포들을 한집안식구로 품어주시고 아파할세라 조국에 데려다 치료도 해주시였다고,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우리모두가 애국공민으로 성장하였다고 동포들의 심정을 담아 격정에 넘쳐 설화시를 읊던 주계숙동포, 노래 《아버지 장군님 고맙습니다》를 부르며 눈시울을 적시던 안미자, 고영석동포들, 노래 《가리라 백두산으로》를 더 잘 형상하기 위하여 정열을 바치던 천재련, 김영옥동포들과 춤가락을 세련시키던 최시웅, 허상숙동포들…

광명성절경축공연을 준비하고있는 재중동포들

동포들이 들었던 평양고려호텔의 창가마다 밤늦도록 꺼질줄 모르던 불빛은 2월로 향한 동포들의 불같이 뜨거운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해외에 사는 동포들은 몸은 멀리 이역에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조국에 두고 광명성절을 성대히 경축하군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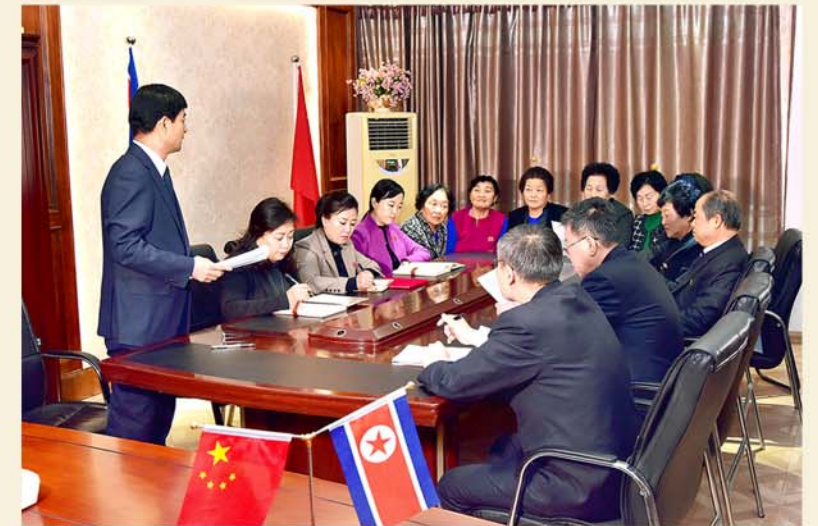
해마다 광명성절을 맞을 때면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서는 중앙보고대회와 강연회 등을 다채롭게 조직진행하였다.

꽃바구니를 정성껏 마련하는 심양시동포들

보고대회에서 최은복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의장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한평생 인민행렬차를 타시고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고 하면서 력사와 인민앞에 만대에 길이 빛날 불멸의 혁명업적을 쌓아올리신 그이의 업적에 대하여 높이 칭송하군 하였다.

최수봉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생을 다 바치신 거룩한분이시였을뿐아니라 언제나 가까이에 있는 자식보다 먼곳에 있는 자식들에게 더 큰 사랑을 다 돌려주신 재중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다고 격조높이 이야기하였다.

광명성절경축행사의 성과적보장을 위해 조직사업을 진행하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일군들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재중조선인녀성협회, 재중조선인청년협회, 길림지구협회, 료녕지구협회를 비롯한 동포조직들도 광명성절을 뜻깊게 경축하였다.

뿐만아니라 재중동포들은 위인칭송의 마음을 담은 광명성절경축 사진 및 도서전시회, 영화감상회, 경축공연도 다양하게 진행하였다.

료녕성 조선족로인협회 회장 리석복동포는 위대한 장군님의 위인적풍모에 완전히 매혹되였다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해가야 한다고 하면서 년로한 몸이지만 광명성절경축행사에 참가하

광명성절경축 사진 및 도서전시회장을 돌아보는 동포들
주체108(2019)년 2월 촬영

여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군 하였다.

일본에서 살고있는 동포들도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와 총련중앙사진전시회 등을 성대히 진행하였고 뉴욕에서 우륵교향악단 단장 리준무동포는 위대한 장군님을 그리며 《2월의 봄》 음악회를 펼치군 하였다.

정말이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은 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변함이 없다.

글 본사기자 임향심
사진 본사편집부

해마다 광명성절을 경축하여 예술공연이 진행되고있다.

중국 길림성 훈춘시 반석향
류정촌 김경춘동생 앞

동생들과 상봉할 그날을 기다리오

보고싶은 동생, 그동안 잘 있었소?

누이동생들인 경애와 경희, 막내동생 경렬이도 건강한 몸으로 잘 있는지.

동생들의 가족들도 몸성히 잘 있으리라 보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추억에 잠긴다고 하더니 정말 요새는 멀리에 있는 동생들의 얼굴이 자주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하겠구만.

그래서 중국에서 소꿉시절을 보낼 때 형제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며 이렇게 펜을 들었네.

사진을 볼수록 지난날이 어제런듯 생생히 떠오르는구만.

그때 우린 장난이 너무도 세차 부모님들의 애를 많이도 태웠지.

맏형님이 그때 우리때문에 욕을 많이도 먹었어. 하지만 한번도 내색하지 않고 우리 형제들을 타이르던 형님의 모습이 선하구만.

황해북도 상원군에서 사는 맏형님과도 자주 전화하며 옛시절을 추억한다네.

참 동생, 지난해 4월 나는 일흔번째 생일상을 받았소.

훌륭히 꾸려진 위성과학자주택지구에서 자식들과 이웃들의 축하를 받으며 기쁨에 겨워 노래를 부르고 춤도 추었다네.

생일상을 받고보니 행복한 나날들로 이어진 한생이 돌이켜지더구만.

반세기전 중국에서 평양으로 왔을 때도 그래, 가정을 이루고 살림을 폈을 때도 그래, 행복은 언제나 내곁에서 떠날줄을 몰랐소.

조국에서 내가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되여 대학을 졸업하고 순천제약공장에서 일하다가 년로보장나이가 되여 들어왔다는것은 동생도 이미 알고있을거요.

나뿐 아니라 우리 집사람과 아들, 딸, 사위, 며느리도 다 대학졸업생이라오.

맏딸 향심이는 강동군에서 교편을 잡고있으며 사위는 큰 공장의 직장장으로 일하고있다오.

아들 영성이는 국가과학원 미생물학연구소에서 연구사로 일하다가 6년전에는 실장으로 되였다네.

주체103(2014)년 10월 위성과학자주택지구가 일떠섰을 때 영성이는 새집을 배정받았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모시고 기념사진도 찍었다네. 지난해에는 연풍과학자휴양소에서 휴양생활도 하고 한결 혈기왕성해져서 왔다네.

영성이는 지금 인민생활과 련관된 공장들의 현대화에 이바지하는 연구성과들을 내놓기 위해 아글타글 노력하고있다네.

나와 로친도 고마운 조국의 은덕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일손을 놓지 않고있네.

동생, 주체104(2015)년에 평양을 방문했던 막내동생 경렬이가 우리가 사는 위성과학자주택지구에 왔을 때도 내 말한바이지만 그리움이 산처럼 쌓이기 전에 한번 모여앉았으면 하오.

조건이 허락되면 올해 태양절에 동생들모두가 평양으로 와서 회포를 나누었으면 좋겠구만.

그럼 상봉의 그날까지 동생들과 가족들이 몸성히 잘 있기를 바라네.

평양시 은정구역 위성동 20인민반
김경택형으로부터

변모되는 신의주시

해외에 살고있는 동포들은 아마도 조국의 국경도시 신의주시라고 하면 잘 알고있을것이다. 한것은 지난 기간 많은 동포들이 조국방문과 함께 가족, 친척상봉 등을 위해 이 고장을 수없이 찾았기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 세계를 무섭게 휩쓴 보건위기의 장기화는 동포들의 그 려행길마저도 일시적으로 중단하지 않으면 안되게 하였다.

우리는 타향에서 조국의 하늘가를 바라보며 고향 신의주시를 그려볼 동포들에게 몇해어간에 변모된 이 고장의 모습을 전하기 위해 취재길에 올랐다.

이곳은 미국의 로스안젤스에서 살고있는 백문규동포의 고향이고 중국 흑룡강성에서 여생을 보내고있는 김련숙의 조카를 비롯한 적지 않은 동포연고자들이 사는 곳이다.

우리가 평양-남신의주행렬차에서 내려 신의주시로 가는 승용차에 올랐을 때에는 어둠이 깃든 저녁녘이였다. 하지만 남신의주의 거리는 가로등의 불빛으로 하여 대낮처럼 밝았다. 거기에 고층살림집들과 공원마다에 설치된 불장식들로 하여 시내의 야경은 더욱 이채로왔다.

동행한 일군인 고영길의 말에 의하면 시에서는 지난해에 남신의주도로만이 아니라 남상거리, 역전거리를 비롯한 10여개 로선에 있던 가로등을 교체하거나 새로 신설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불장식도 더욱 다양하게 하였다고 한다.

보다 주목되는것은 시의 명당자리에 신의주교원대학과 도과학기술도서관이 웅장하게 일떠선것이다. 연건축면적이 1만 1 290㎡에 7층으로 건설된 신의주교원대학은 교사와 기숙사, 체육관, 전자도서관을 비롯하여 학생들에 대한 교수교양,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조건과 환경이 그쯘하게 갖추어져있었다.

조선식합각지붕을 떠이고 솟아오른 도과학기술도서관도 과학기술보급거점답게 꾸려져있었다.

시에서는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사업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고있었다.

신의주시 본부유치원

신의주교원대학

우리는 그 모습을 화면에 담기 위해 먼저 락원기계종합기업소를 찾았다. 기업소는 굴착기와 산소분리기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대형기계와 대상설비들을 생산하는 기계공장이다. 지난 시기 피해복구지역들에 유압식굴착기들을 제때에 만들어 보내준 기업소의 로동계급은 지금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과업관철을 위하여 80hp뜨락또르협동품과 능력이 갱신된 유압식굴착기, 유압식만능삽차 등을 계렬생산하고있다.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설비의 현대화와 대상설비생산을 동시에 추진해가고있는 기업소종업원들의 모습을 사진기에 담은 우리는 신의주화장품공장으로 향하였다. 최근년간에 봄향기연구소를 일떠세운 공장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세수비누포장공정과 기초화장품포장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였다.

이곳 연구소 부소장 공훈과학자 교수 박사

김흥원은 《연구소가 세워짐으로써 화장품개발과 도안 및 설계, 생산공정의 부단한 현대화, 제품판매 등에 이르기까지 인민들의 미적정서와 시대적요구에 맞게 화장품공업을 선진수준으로 끌어올릴수 있게 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부단한 창조로 새 제품개발과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가고있다는 긍지에 넘친 목소리들을 우리는 신의주제약공장과 신의주방직공장에서도 들을수 있었다. 그런가 하면 개건현대화로 들끓고있는 신의주화학섬유공장과 지난해에 련이어 준공된 학생교복공장, 신의주방역의료품공장, 신의주밀가공공장, 평안북도승마구락부 등을 돌아보면서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가슴속에서 높뛰고있는 숨결도 느낄수 있었다.

우리는 그들의 숨결을 체감하며 최근 몇년간에 신의주시를 변모시킨 비결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알수 있었다. 그것은 신의주시민들의 열렬한 향토애, 공장애였다.

우리는 동포들이 신의주시를 찾는다면 아마 그들도 몇해어간에 몰라보게 변모된 고향도시와 시민들이 지닌 정신력에 놀라움과 감동을 금치 못할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이곳을 떠났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락원기계종합기업소

신의주방직공장

신의주화장품공장

신의주젖소목장

력사이야기

호랑이를 잡은 소년

평안남도 증산군에는 조선서해기슭에 자리잡은 석다곶산이라는 산이 있다. 이 산은 돌들이 기묘하게 높이 치솟아있어서 올려다보면 당장 무너져내려앉을것만 같아 쳐다보는 사람마다 아찔해한다.

석다곶산기슭에는 적성골이라는 자그마한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에서 조선력사에 뚜렷한 공적을 남긴 고구려의 명장 을지문덕이 태여났다.

그는 어릴 때부터 남달리 용맹하고 인정이 두터워 어른들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으며 동무들속에서도 신망이 높았다.

을지문덕은 체력을 단련하고 무술을 익혀야 고향을 지킬수 있고 나라도 지켜낼수 있다고 하면서 석다곶산에 올라 매일밤 몸과 마음을 단련해나갔다.

열대여섯살 났을 때 그의 이름이 고을에 요란하게 나게 된 일이 있었다.

당시 그는 날마다 마을에서 5리가량 떨어진 바다가의 염전에 나가 소금을 구웠다. 그러던 어느날 저녁때에야 일을 끝낸 그는 집으로 돌아오고있었다. 무심히 걷고있던 그는 걸음을 멈추었다. 길 한복판에 송아지만한 짐승이 막아서서 어물거리고있었던것이다. 그 짐승이 하도 성가시게 구는바람에 몽둥이로 후려치고는 그놈을 번쩍 들어 땅에다 내동댕이쳤다. 그런데 후에 알고보니 이 짐승이 다름아닌 호랑이였던것이다.

그후 그는 어머니를 여의고 동리대장쟁이의 양아들로 자라게 되였다. 양아버지는 처음 그에게 풍구질을 시켰다.

그러나 사흘도 못가서 을지문덕은 성이 차지 않아 쇠메질을 하였는데 어른들보다 더 기운차게 해댔다. 이때부터 장수가 났다는 소문이 자자하게 나고 이 소문은 조정에까지 알려져 그는 얼마후 조정으로 불리워가게 되였다.

그무렵 고구려는 외래침략자들의 침입으로 하여 매우 위태롭게 되였다.

바로 이러한 때 을지문덕장군은 고구려군사를 이끌고 청야전술을 비롯한 비상한 전법을 써서 침략군을 추풍락엽의 신세로 만들었다.

지금도 석다곶산에 올라가면 을지문덕장군이 무술을 닦을 때 리용하던 돌집이 있고 집안에는 돌로 된 책상이 있다. 그리고 석다곶산 맞은편에 솟은 산을 마우산이라고 부르고있는데 을지문덕장군이 타고다니던 말이 나온 산이라는데서 유래되였다고 한다.

*　　*　　*

언어학자 리극로

주체37(1948)년 4월에 진행된 어느한 회의에서 호소문을 랑독하는 리극로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무엇인가 하자던 꿈도 실현하였고 조선어를 마음껏 연구하자던 소원도 풀었다. 우리 수령님을 모시지 못했다면 암흑의 세상에서 헤매이던 내가 어떻게 이런 인생의 복락을 누릴수 있었겠느냐.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것은 우리 민족의 더없는 행복이고 기쁨이며 자랑이다.》

이것은 리극로선생이 인생말년에 자식들에게 한 말이다.

조선민족의 언어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친 애국적인 지식인들속에는 언어학자 리극로선생도 있다.

1893년 8월에 태여난 그의 전반생은 나라를 빼앗기고 참다운 령도자를 모시지 못한 사람이 어떤 운명을 겪게 되는가를 뼈에 새긴 고행길이였고 후반생은 위대한 수령님과 조국의 품에서 평범한 지식인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얼마나 큰일을 할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행복한 삶의 절정이였다.

일제에게 국권을 강탈당한 치욕에 온 겨레가 몸부림치던 시기 리극로선생은 구국의 뜻을 품고 학문탐구에도 열중하였고 의병대의 화승총도 잡아보았으며 독립운동의 방략을 찾아 상해, 모스크바, 베를린 등으로 동분서주하며 세계의 명망높은 지도자들을 찾아다니기도 하였다. 한편으로는 1927년에 열렸던 제1차 세계약소민족대회에 참가하여 국제사회에 조선의 독립을 인정해줄것을 애타게 청원도 해보았다.

1927년 국제공산당에서 조직한 어느한 대회에 참가하여

하지만 그에게 차례진것은 나라잃은 민족의 고통과 슬픔이였고 수난에 찬 울분뿐이였다. 그중에서도 제일 참을수 없은것은 일제의 민족동화정책과 조선어말살책동으로 하여 조선말과 글이 스러져가는 아픔이였다.

고학으로 베를린종합대학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귀국하여 조선어를 고수하고 발전시키는것으로 반일을 하고 빼앗긴 나라와 민족을 되찾으려는 의지를 안고 정력적으로 연구사업도 진행하였다.

이 나날 그는 《조선어어음의 된소리음리에 대한 과학적천명》, 《<훈민정음>의 독특한 음성관찰》 등 가치있는 론문들을 내놓았으며 《조선속담놀이》라는 새로운 유희도 만들어 우리 인민들이 고유한 조선어와 속담들을 알고 활용하면서 민족의 넋을 지켜나가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조선어사전을 편찬할것을 구상하고 여기에 모든것을 바치였다.

조선어편찬사업에 전력을 기울여가는 그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겨온 일제는 《조선어학회사건》이라는것을 조작하여 그를 체포투옥하고 갖은 고문을 들이대였다. 하지만 일제는 독립의지와 우리 말과 글을 끝까지 지키려는 그의 지조를 꺾을수 없었다.

해방과 함께 감옥에서 나온 리극로선생을 건국의 보람찬 길에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신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이시였다.

주체37(1948)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리극로선생을 만나주시고 그의 애국적공로에 대하여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그리고 그에게 민족어연구를 위한 중대한 과업을 맡겨주시였을뿐아니라 필요한 대책을 다 세워주시였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고 그 출중한 위인상에 감복된 그는 이런 즉흥시를 읊었다.

…

따르라 인민들아 무조건이다
그이를 따르면 된다
백전백승의 평장이 여기에 계시니
무엇을 주저하랴 따르면 된다
…

위대한 수령님을 따르면 민족번영의 래일이 반드시 오게 될것이라는 확신을 지니고 그는 자기 삶의 닻을 평양에 내리였으며 조선어사전 및 조선어문법편찬사업을 하였다.

뿐만아니라 오랜 기간의 교수 및 과학활동을 통하여 유럽의 대학들과 학계에서 조선말에 대한 관심을 높이게 하고 조선말 말소리에 대한 연구와 조선말 조(소리가락)에 대한 과학적해명을 하였으며 일부 력사적인 조선글자의 소리값과 본질도 밝혀냄으로써 민족어의 발전과 규범화에서도 특출한 기여를 하였다.

리극로선생은 공화국 초대내각의 무임소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등의 직무를 맡아 수행하였다.

그는 언어학자로서 자기 의무에도 충실하였다. 80고령에 그는 조선어의 억양변화를 과학적으로 서술한 《조선어조사전》을 완성하여 세상에 내놓았다.

이 나날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사, 박사의 학위를 받았으며 국기훈장 제1급을 비롯한 많은 훈장과 메달을 수여받았다.

그는 자식들모두가 자자손손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충실하기 바란다는 유언을 남기였다.

글 본사기자 강은순
사진 본사기자 리영철

리극로선생의 유해는 신미리애국렬사릉에 안치되여있다.

정월대보름명절의 별식 오곡밥

동포여러분, 올해 2월에는 설명절과 함께 정월대보름명절도 맞게 됩니다.

며칠전 소학생인 나의 아들이 문득 이렇게 말하는것이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수업시간에 우리 선생님이 정월대보름명절에는 꼭 오곡밥과 아홉가지 마른나물을 먹어야 한다고 했어요.》

《너 벌써 잊었니? 작년에 우리 집에서도 정월대보름날에 오곡밥을 먹지 않았니? 곱배기를 하고서도…》

《아, 생각나요. 그때가 정월대보름날이였댔지요? 그런데 왜 오곡밥이라고 부르나요?》

오늘 조국의 그 어느 가정에서나 정월대보름명절날 별식으로 지어먹고있는 오곡밥에 대해서 어린 아들에게 설명해주었는데 잡지 《금수강산》에도 소개할가 합니다.

먼저 오곡밥에 대한 리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조선사람들의 주식물인 밥에 대해서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밥은 짓는 방법이 독특하고 맛이 좋아 예로부터 다른 나라에까지 소문났습니다.

고려시기에 우리 나라에 왔던 중국사람인 서긍은 《고려도경》이라는 책에 조선의 밥은 밥알이 크고 달면서도 맛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랜 력사적기간 우리 인민들이 지어먹은 밥은 그 종류가 여러가지입니다. 대체로 알곡만으로 지은 밥, 알곡에 부재료를 넣고 지은 밥, 밥을 재가공하여 특유한 맛을 내게 한 밥 등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이러한 밥의 특징은 우선 낟알에 알맞춤하게 물을 부어 끓이므로 낟알의 본래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얼마간 불어나 밥이 연하고 부드럽고 찰기가 있으며 기름기가 돌아 먹기가 좋은것입니다.

그리고 밥을 씹으면 씹을수록 구수하면서도 단맛이 느껴지며 매일 먹어도 싫증을 느끼지 않고 물리지 않는것이며 밥에 낟알의 영양분이 거의 그대로 보존되여있어 건강에 좋은것입니다.

또한 녀성들이 각종 낟알과 고기, 남새 등 부재료들을 섞어서 여러가지 종류의 밥을 지을수 있으므로 식사때마다 똑같은 한가지 밥이 아니라 다양한 영양성분을 가진 밥을 먹을수 있는것입니다.

해외에 살고계시는 동포들도 오곡밥이 다섯가지 곡식으로 지은 밥이라는것을 잘 알고 있을것입니다.

조국인민들이 오곡밥을 지어먹기 시작한것은 여러가지 알곡이 재배된 먼 옛날부터였습니다.

삼국시기의 기록들에는 오곡농사가 잘된다고 씌여져있습니다.

정월대보름명절때 오곡밥을 별식으로 지어먹는 풍습은 한해동안 애써 농사지은 곡식을 명절을 계기로 종합적으로 맛보려는데도 있지만 그보다 오곡이 사람들의 건강증진에 좋고 새해에도 오곡이 잘되여 풍년이 들며 다섯가지 복이 차례지기를 바라는 소박한 념원을 반영한 풍습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곡종이 서로 다른 다섯가지 알곡은 시대와 지방에 따라 서로 다르게 꼽았습니다. 그러나 기본은 백미와 팥입니다.

오곡밥을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오곡으로서 백미, 좁쌀, 수수쌀, 보리쌀, 팥을 선택합니다. 백미는 물로 씻어 불구어놓고 수수쌀은 붉은 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더운물에 씻어 미지근한 물에 40분이상 불군 다음 껍질을 벗깁니다.

보리쌀은 씻어 물에 2시간이상 불구었다가 끓는 물에 푹 삶아내고 팥은 씻어 찬물에 넣고 팥알이 터지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삶으며 좁쌀은 물에서 손으로 비비면서 씻고 일어 불구어놓습니다.

가마에 안치는 순서는 익는 시간이 오랜 팥, 보리쌀, 수수쌀, 백미, 좁쌀로 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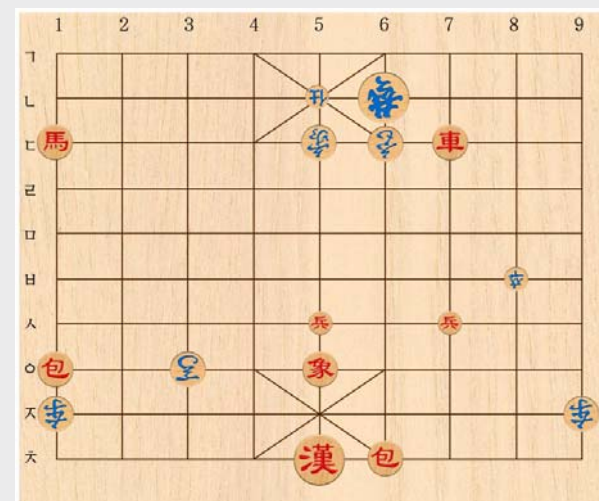
가마에 팥을 1시간정도 삶은 후 거기에 보리쌀을 펴고 약 20분동안 끓이다가 그우에 수수쌀, 백미, 좁쌀을 순서대로 안친 다음 밥을 짓습니다. 밥물이 잦아들면 불을 약하게 하고 뜸을 들이면 오곡밥이 완성됩니다.

정월대보름날 오곡밥을 먹을 때에는 꼭 묵은나물로 찬을 만들어 곁들여내는 풍습이 있는데 전해에 수확하여 말린 호박이나 오이, 가지, 무우, 배추잎, 산나물 등을 가공하여 만든 음식을 함께 먹으면 그해 여름에 더위를 타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여 우리 인민들은 예로부터 정월대보름날에 오곡밥과 9가지 나물을 만들어먹는것을 풍습으로 전해오고있는것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맞게 될 정월대보름명절에 동포여러분의 모든 가정에서도 오곡밥을 드시게 되기 바라며 이만 펜을 놓겠습니다.

본사기자 연 옥

장기수풀이 (14)

붉은색쪽이 먼저 써서 푸른색쪽을 이겨야 합니다.

장기격언

차는 중

차가 상대방의 구역에 들어가서 궁자리행선(ㄴ행 또는 ㅈ행)에 서는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는 뜻이다.

차가 중에 서면 상대방방어에 혼란을 주고 결정적인 공격조건을 마련할수 있다는것을 말한다.

장기수풀이 (13)에 대한 답

ㅂ5말ㄹ4, ㅁ3말ㅅ4, ㅅ6포ㄱ6,
ㄹ6차ㄱ6, ㄴ3차ㄴ4, ㄴ5차ㄴ4,
ㄱ1차ㄱ6, ㄷ5사ㄴ5, ㅇ5상ㅁ7,
ㄷ4궁ㄷ5, ㄹ4말ㅁ6, ㄷ5궁ㄷ4,
ㄷ2말ㄱ3, ㄴ4차ㄴ3, ㄱ6차ㄴ5,
장훈

개성이 뚜렷한 화가 리린상

시서화(시, 서예, 그림)에 능하여 조선력사에 이름을 남긴 사람들중에는 리린상(1710년-1760년)도 있다.

리린상은 도화서의 화원은 아니였으나 당시 선비화가들중에서 개성이 뚜렷한 화가로 널리 알려졌다.

리린상은 천성이 소탈하고 언제나 대바르게 행동하여 친구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고 한다.

리린상이 한창 그림공부를 할 때 그에게는 친형제처럼 아주 다정하게 지내는 막역한 친구가 있었다.

그러나 그 친구는 집이 가난한탓에 함께 그림공부를 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업수임을 당하군 하였다.

하지만 린상은 그의 성품과 남다른 재간을 중히 여기며 각별히 대해주었다.

언제인가 린상은 친구와 함께 그림을 그리기 위하여 산에 오른적이 있었다. 산으로 오르던중 친구는 발을 헛디디여 골짜기로 굴러떨어지게 되였다.

리린상은 부상을 당한 친구를 위해 밤이면 그의 곁에서 병구완을 해주었고 낮이면 이산저산 깊은 골짜기와 험한 칼벼랑도 마다하지 않고 약초를 뜯으러 다녔다.

그리고 친구의 병이 어느 정도 호전되였을 때에는 그를 업고다니며 함께 그림공부를 계속하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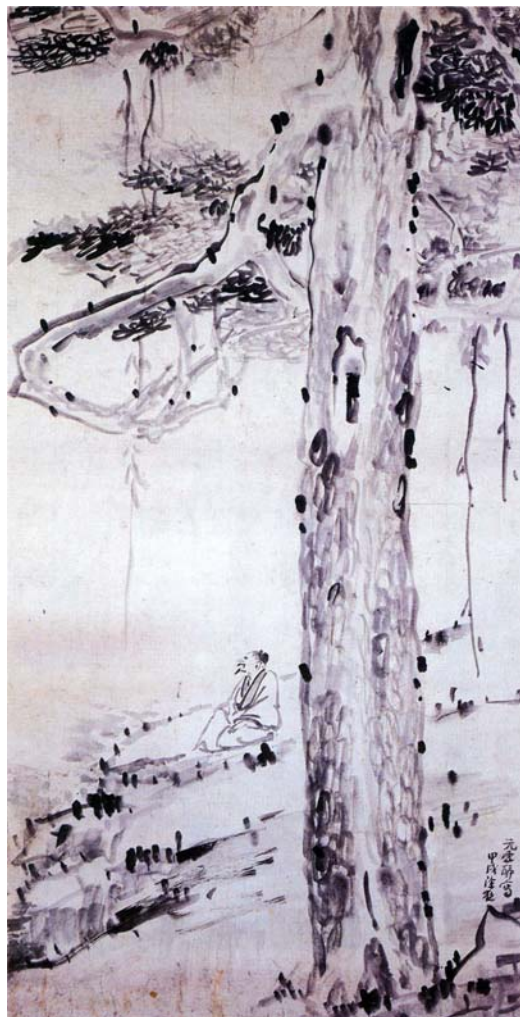
리린상의 그림을 보면 대체로 산수화를 기본으로 그렸다는것을 알수 있다.

《나무밑에서》
80. 5×40㎝ 종이·먹

현재 조선미술박물관에 보존되여있는 88폭병풍의 《산수도》는 그의 대표작이다.

이 그림은 대체로 리린상이 친구의 병치료를 위해 약초를 캐러 산에 오르면서 눈에 익히고 친구를 업고 그림공부를 하러 다닐 때 그린 것이라고 한다.

그림은 현실에서 실지 찾아내기 힘든 독특한 구도형식을 취하고 묽고 연한 먹색으로 부드럽게 조화시키면서 조형적인 선들을 기운차고 생동하게 살리였다. 선들의 굵기와 먹색의 농담, 강약을 잘 조절하여 원근감, 립체감들을 뚜렷이 표현하면서도 부드럽게 조화시킨 필치는 그 누구도 따르지 못할 그의 특기였다.

우리 나라 그 어디에서나 볼수 있는 평범한 자연을 묘사한것같으면서도 수려하고 독특한 풍치를 이루고있는 그의 풍경화들은 조용하고 안온하고 은근한것같으면서도 그속에 열정과 힘이 있고 웅장한 멋을 주고있다.

《기암로목》 33. 7×59. 7㎝ 종이·먹

《구학정》
34×23. 5㎝ 종이·담채

리린상은 글씨에도 유명한 사람이였다.

기록에 의하면 그의 전서체글씨는 조선에서 제일이라고 하였으며 예서를 쓸때의 획법이 그림그리는데 그대로 적용되였다고 한다.

그는 그림을 그리는데서 특히 나무와 마른나무가지의 새둥지를 잘 그리는 특징이 있다고 전해오고있다. 그는 그림에 쓰는 제화시도 잘 지어 보통화가들의 제화시에는 대비도 안될 월등한 글을 썼다고 한다.

또한 그는 격조높은 시어를 잘 구사할줄 아는 뛰여난 풍류시인이였고 풍채가 고상하고 절개가 있어 선비들은 그와 즐겨 사귀였다고 한다.

매 화폭마다 향토애의 감정이 넘치고 도식적인 틀에서 벗어나 개성이 뚜렷한 화법을 창조한 리린상은 18세기 화단을 장식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실장
박사 부교수 강명석

《수옥정》
34×23. 5㎝ 종이·담채

이름난 서예가 한호

조선봉건왕조시기의 서예가인 한호는 자는 경홍, 호는 석봉, 청사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서예에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있었지만 어려운 생활난으로 땅바닥이나 돌우에 글을 써보며 재능을 련마하였다.

그는 어머니의 도움을 받으면서 예로부터 내려오는 이름있는 서예가들의 글씨를 익히였고 그것을 발전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다.

마침내 그는 서예의 독자적인 경지를 개척하였다.

1567년에 과거에 합격한 그는 글씨를 잘 쓴것으로 하여 사자관의 벼슬도 하였다.

그의 필적은 오늘도 많이 전해지고있는데 그중에서 널리 알려진것은 천자문이다.

옛 기록에 의하면 그의 글씨는 《성난 사자가 바위를 뚱기치는듯, 목마른 천리준마가 샘물을 찾아 내달리는듯 기백이 있다.》고 하였다.

그의 글씨는 당시 우리 나라는 물론 다른 나라들에도 널리 알려졌다.

* * *

잡지 《금수강산》은 인터네트 《조선의 출판물》홈페지에
조선어, 로어로 게재됩니다.
http://www.korean-books.com.kp
주　　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전자우편: flph@star-co.net.kp

뒤표지: 대동문의 설경/리영철

ㄱ-24088012849